



잠깐! 이곳부터 보호구 착용 구역입니다.

-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형광조끼)
- 차량운행중

Stop! THIS IS A WORK PLACE. WEARING PPE (Hard hat, Safety footwear, Safety glasses, High Visibility Clothing)

‘안전’이라는 긴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걷다

08

AUGUST 2018
vol.348

안전보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Safenology

지게차 안전지대를 찾아서

Contents

SPECIAL THEME

SAFENOLOGY

-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안전보건공단이 앞장섭니다!



Special Theme I

사망사고재해 발생 기계·설비 기인물 1위 지게차 안전지대를 찾아서

전국적으로 약 24만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게차는 쓰임과 용도가 다양한 만큼 재해율도 높다. 사망사고 제1순위 기계·설비 기인물, 지게차! 안전한 지게차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노력을 살펴본다.

Special Theme II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그 뜨거웠던 열기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간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해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온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한 이번 행사의 면면을 소개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18 365안전지대**
바른 먹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비알코리아
- 24 중대재해사례 1**
작업대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 28 중대재해사례 2**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고
- 32 중대재해사례 3**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절단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
- 36 현장에서 만난 사람**
단단하게 굳힌 '안전의 근본'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생산본부 황 현 실장
- 42 모두의 건강주치의**
튀어나온 핏줄 없는데 하지정맥류?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일수록 유념하세요!
- 46 당신을 응원합니다**
들쭉날쭉한 수입, 분노하는 마음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 50 미디어 보물창고**
- 52 글로벌 파트너**
작업 전 안전교육,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54 함께해요 안전보건**
아이들을 위한 '생활 속 안전정보'를
알려주세요
- 56 기인물 연구소**
강재 비계

생활 속 안전문화

- 62 안전의 참견**
비계 해체 작업 시 주의사항
- 66 씬(SCENE)스틸러**
진드기와의 하룻밤 여름 캠핑 주의보
- 68 생활 속 안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버린 카페인
- 70 건강 한 끼**
내 귀에 도청장치?
소음 많은 작업장, 귀 건강 챙기세요
- 72 생각을 키우는 책**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 74 리더의 유머力**
건강한 조직을 이끄는 여유만만 좋은 리더
- 76 안전UP 희망UP**
- 78 KOSHA News**
- 84 독자마당**
- 87 응급처치 119**

안전보건 2018년 8월호 제30권 제8호(통권 348호)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박두용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김무영, 남해송, 김인성, 정종득, 박상복,
양상철, 홍순의, 김태호, 김승환
담당 하신영(eoqkr@kosha.or.kr) 052-703-0697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제작·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인쇄 ㈜연각피앤디
홈페이지 www.kosha.or.kr

* 월간 <안전보건>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사진과 삽화,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중기획③

산재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게차

사망사고재해 발생
기계·설비 기인물 1위

지게차 안전지대를
찾아서



적재·하역·운반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게차는 전국적으로 약 24만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지게차에 의한 재해발생도 높다는 점인데, 지게차는 사망사고 제1순위 기계·설비 기인물로서 한 해 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한 지게차 작업 환경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이와 관련한 안전보건공단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공개한다.

글 편집실

사망사고 1위 기인물, 지게차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작업방식도 비교적 단순해 사고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지게차는 한 해 평균 지게차 사고로 34명이 죽고 1,144명이 다치는 등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설비로 손꼽힌다. 주 원인은 시야 미확보에 따른 작업자와의 충돌, 지게차의 넘어짐,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하거나 이동 중 발생하는 추락 등이다.

특히 작업자와의 충돌과 넘어짐 사고는 사망사고 유형 중 가장 빈도수가 높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 작업방식도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지게차 안전사고가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바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게차를 구입 또는 임대한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안전규칙을 철저히

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사업주는 ①조종면허가 있는 자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나눠 적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③작업 시작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행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게차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가 풀림이 없도록 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자를 포크에 태워 높은 곳으로 올리는 등 화물 적재나 하역, 운반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노동자가 지게차 접촉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적재물을 신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지휘자가 작업 순서를 정해 지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지게차에 의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단위: 명)



“

안전보건공단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지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

대대적인 실태조사 착수하는 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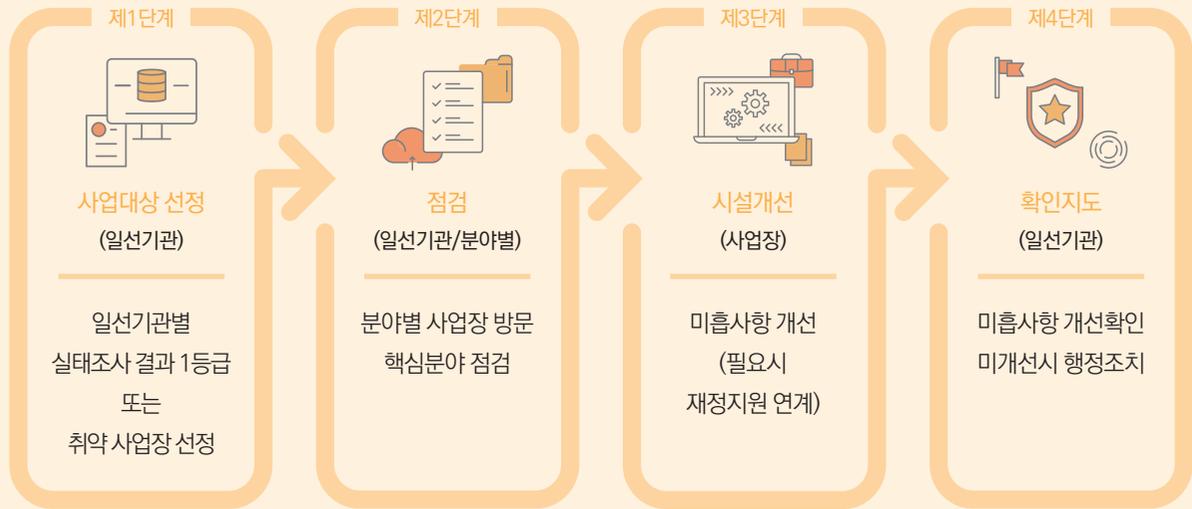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는 결국 사업자와 근로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예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대 원칙(①운전은 자격을 가진 지정된 자가 운전할 것 ②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후진 운전 시 반드시 후방을 확인할 것 ③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줄곧 강조해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현황 조사와 사업장 관리를 통해 지게차 사망사고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약 10만개 소에 달하는 지게차 보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전국의 사업장 실태와 위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의 용량, 형식,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이해도, 위험관리 상태 등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장을 3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눠 특별교육과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은 사업장에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전담 운전자 스티커’를 보급하고, 2등급에는 ‘관리감독자 및 운전자 특별교육’을 추가하고, 1등급 사업장에는 안전설비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더해주는 식이다.

방문점검 시에는 △지게차 전담 운전자 자격 확인 △지게차 좌석안전벨트 설치 여부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 등 정상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게차 포크 위 고소작업을 절대 금지하는 등의 안전수칙도 확인할 방침이다.

추진절차



실태조사 결과 환류체계

등급	실태조사 및 차등관리		환류
	사용 및 관리상태	차등관리	
3등급	양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전담 운전자 스티커 보급	자율적인 예방활동 전개
2등급	보통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전담 운전자 스티커 보급 관리감독자·운전자 특별교육	
1등급	미흡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전담 운전자 스티커 보급 관리감독자·운전자 특별교육 방문 점검, 재정지원	법적사항 미개선시 행정조치 의뢰
점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후방 감시카메라 등 충돌방지장치 설치(재정지원 연계) • 좌석안전띠(착석 및 주행연동),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등 정상 설치 확인 • 지게차 포크 위 고소작업 절대 금지, 필요한 경우 전용 작업대 설치 • 지게차 전담 운전자 자격확인 → 전담 운전자 알람 스티커 부착 		



간간해자는 지게차 조종면허 시험

지게차는 물류터미널 창고 내에서 취급하는 작은 것부터 컨테이너 취급용의 거대한 것까지 그 특유의 범용성 덕분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포크 부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범위 또한 넓다.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나른다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의 큰 공간에서도 빛을 발휘한다. 항만이건 토목 현장이건, 그리고 대형 화물 집하현장이건 모두 지게차 몫이기 때문에 지게차의 쓰임은 그야말로 다재다능하다. 하지만 포크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지게차의 특성상 하중이 앞으로 쏠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지게차 운전은 조종면허 자격을 취득한 숙련된 자가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충돌·추락·전도·전복·낙하·끼임 등으로 인한

지게차 사망사고 중 무자격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속도가 자동차 운전보다 빠르지 않고 작업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는 점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조종면허 시험에 안전관련 문제 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장비의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운전자가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3톤 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필기시험에는 현재 '기계·기기 및 공구에 관한 사항' 및 '오염

방지장치' 등에서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추가한 세부항목 평가기준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에는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3톤 미만 지게차의 교육과목은 ①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②유압일반 ③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④조종실습 등으로, 교육과정 자체에 안전관련 과목 추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 후방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상생협업으로 완성하는 지게차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안전보건공단은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자체, 유관 기관,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강화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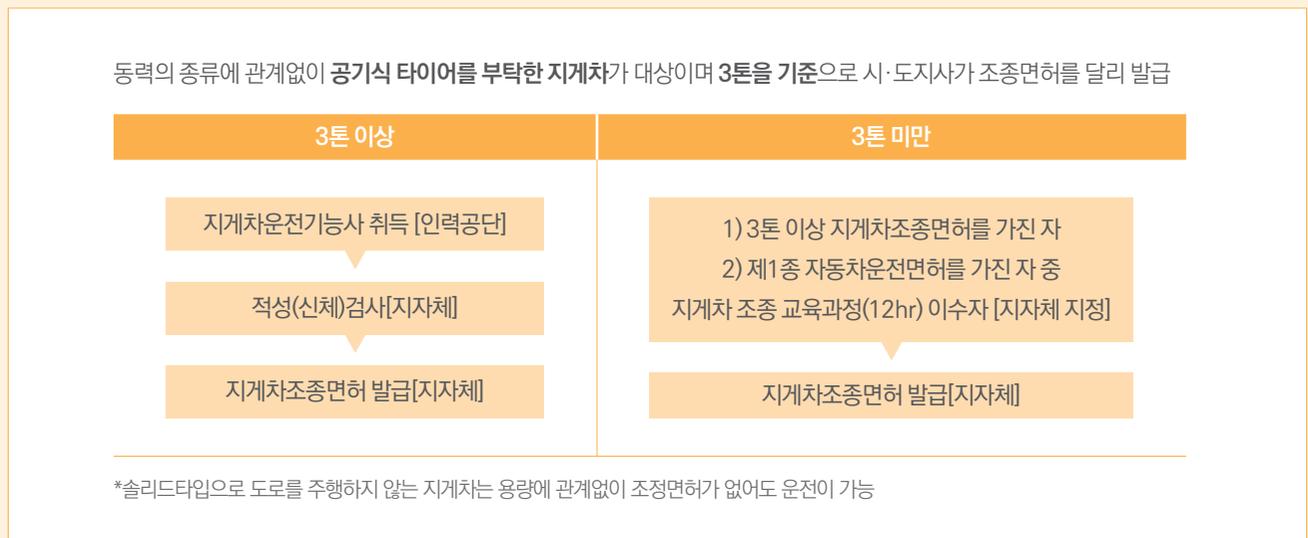
우선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지자체에 재해현황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지자체 스스로 적극적

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지게차 등록대상 및 면허 발급자를 대상으로 지게차의 사망사고 원인 및 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지게차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장치가 완비된 지게차가 임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으로, 지게차를 제작하거나 수입, 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해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지대에 들어서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게차의 안전한 사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단 일선기관별로 지게차 운전자 및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게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바로 알기' 직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인 안전보건공단.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는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지게차 조종면허



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

현황

- 지게차는 적재·하역·운반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전국적으로 약 24만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지게차는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로 한해 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
- 주요 사고 유형은 충돌(30.6%), 깔림(19.8%), 추락(9.5%)순으로 점유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① 실태조사·분석

- 지게차 보유현황·사용실태 현황조사·분석

② 위험등급별 사업장 관리

- 방문점검 및 감독·운전자 특별교육
-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연계

③ 제도개선 지원

- 지게차 조종면허 시험에 안전관련 사항 반영 요청
- 지게차 부딪힘 위험 방지를 위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건의
- 자발적 안전장치 부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거버넌스 강화

④ 상생협업

-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⑤ 핵심메시지 전달



- 운전은 자격을 가진 지정된 자가 운전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후진 운전 시 반드시 후방을 확인할 것



-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

기대효과

- 국내 지게차 핵심 위험요인 제거 기반 조성
- 위험정보(DB) 구축으로 통계기반의 산재예방활동 구현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그 뜨거웠던 열기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간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해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온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안전보건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글 편집실 | 사진 안용길(도트 스튜디오)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막을 올린다

정부가 공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발맞춰 키 메시지를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로 선정한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7월2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은 ‘산재사망사고 감축’이 주요 메시지였던 만큼 기념식에서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특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과 조선, 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 하는 등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시점인 2022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산재예방에 앞장선 사람들과 함께했던 뜻깊은 자리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 표명이 돋보였던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산재예방에 힘쓴 유공자들을 위한 정부포상 시간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우수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을 실천해온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주요 수상자는 총 21명으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서비스업종 산재예방’ 등에 앞장선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재해예방에 앞장선 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어 의미를 더했다. 올해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사망사

고 재해예방 우수사례’ 항목이 신설된 것이 큰 특징으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다각적인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소음 노출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 등의 사례발표는 물론, 서비스분야에서 감정노동을 겪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실천사례, 외국인 근로자 안전의식 선도사업, 모기업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체적 실행방안들이 오갔던, 정책세미나 현장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서는 ‘정책방향 제시 및 국제 트렌드’를 짚어볼 수 있는 안



전보건 세미나도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세미나 17건을 비롯해 총 34건이 진행된 이들 세미나는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새로운 건강위험 요인',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제로 각계 인사들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세미나의 인기가 가장 컸다.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내놓으며 미래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싱가포르 MOM 안전보건국장은 국외의 사망사고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예방정책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강조했다. 또,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는' 정책 변화에 맞춰 Erik Hollnagel이 준비한 '안전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발표 역시 달라질 미래 산업환경을 예측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업종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6개의 중요 세미나 역시 주목할 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철강업, 서비스업, 조선업 등에 종사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정책 방향을 전달함으로써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강조했고, 더불어 각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봄으로써 미래 산업안전보건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갔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2018),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선보이다

2일부터 4일간 코엑스홀 3층에서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안전보건 장비를 소개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총 7개존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을 비롯해 압력용기, 방폭전기기기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회를 빛냈는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사망사고예방존, 스마트안전특별존,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존’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사망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안전보건공단의 뜨거운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안전 신기술 공모전 수상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한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존’ 역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단 주최로 마련된 특별관에는 안전 신기술 공모전 수상기업들의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됐으며, 이들 기업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판로개척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보다 발전된 내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다.

인기만점 VR콘텐츠,

안전한 미래 산업현장의 가능성을 엿보다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이번 제51회 산업안전보건주간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 실감형 VR콘텐츠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는 현실처럼 생생한 가상체험을 도입한 업체들의 다채로운 VR콘텐츠 덕분이었다.





우선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예방 안전보건 체험존’에 마련된 ‘Safety VR Zone’은 건설현장의 불량 비계 및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 감전, 끼임 등의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VR(2종)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PC 및 모바일에서 VR전용관(<http://360vr.kosha.or.kr>)에 접속하면 위험요인 및 대책을 알 수 있는 정보제공형 VR 시연 역시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한 몸에 받았다. VR콘텐츠는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보다 사망사고 감축에 더 효과적임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5년간 체험형(25종), 정보제공형(1,000종)의 VR콘텐츠를 더 개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선보인 ‘Safety VR Zone’과 더불어 안전보건 ICT기술을 도입한 참가업체들의 VR 및 디지털 콘텐츠의 향연 역시 놀라웠다. 그중 금년 공단과 공동 제작으로 처음 선보인 ‘2인 동시 체험형 VR’을 구현한 ㈜솔트웍스는 하드웨어 및 감전, 베임, 뜨거움 등의 감각 체험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까지 선보여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추락, 전복, 질식, 충돌, 협착, 낙하물, 감전, 화재’ 등 산업현장의 주요 재해 형태를 VR콘텐츠로 제작한 엠라

인스튜디오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통한 VR콘텐츠 집중투자로 체험자의 관심을 받았으며, 스마트 안전TV를 통해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IOT기술 기반의 디지털리츠, 안전보건 관련 자기주도 학습과 게임을 접목시킨 서바이벌식 미션형 안전교육을 선보인 페리굿 등이 생생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체험하고 정보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왔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로 구성된 VR체험 및 디지털콘텐츠로 행사 기간 내내 활기가 넘쳤던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이번 행사는 텍스트 위주로 진행되었던 과거의 안전보건교육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새로운 변화와 보다 나은 안전한 미래 산업현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다

제51회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은 안전과 문화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다채로운 국민참여행사를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 산업현장의 안전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 특히 안전과 문화가 만난 이색적인 프로그램의 향연이 돋보였다. 세바시, 안전연극, 대학(원)생 퀴즈배틀, 외국인 퀴즈대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뜻을 담은 세바시는 박두용 안전보건 이사장,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수잔 샤키아(방송인),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초빙돼 안전보건을 소재로 한 강연을 펼쳤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강연자들의 이야기는 관람객들과 공감을 자아내며 안전의식 고취에 힘을 실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선보인 안전연극 역시 뜨거운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강조주간 행사 동안 안전연극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 역시 조기 전석 매진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실감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 토크콘서트에는 영화배우 박철민 씨가 패널로 나와 경험을 나눴으며, 산업안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의식을 고취시켰던 ‘대학생 산업안전 퀴즈배틀’은 승자가 되기 위한 참가자들의 경쟁 열기로 뜨거웠다.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노력과 협력업체들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관람객들의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던 제51회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단의 내일이 더욱 기다려진다.



여름철, 수시로 물을 섭취하세요

폭염에 의한 열사병, 열탈진 등은 적절한 휴식과 물 섭취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의 양이 많은 만큼 하루 물 권장량(남자 2,600ml, 여자 2,100ml)보다 많은 양의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면 위가 늘어나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니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바른 먹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협력사와 함께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비알코리아는 우리나라의 대표 식품기업 SPC의 계열사로, 도넛 전문점 던킨도너츠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한다. 그중 던킨도너츠 사업부는 전국에 도넛생산공장 8곳과 커피로스팅공장 1곳을 설립, 하루 33만 개의 도넛과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한다. 각 가맹점이 아닌 생산거점에서 도넛을 만드는 만큼, 전국 가맹점 어디서나 높은 품질의 도넛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알코리아 던킨도너츠 사업부는 도넛의 맛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쓴다. 매일 21만 개의 도넛을 생산, 수도권과 강원도 가맹점 납품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공장이 그 중심에 있다. 2015년 7월, 안양공장은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자동화 수준을 70% 내외로 끌어올리는 공장 리뉴얼을 실시했다. 그런데 생산 공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보니 이듬해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공장의 생산성 모두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점을 인지한 비알코리아는 즉시 공장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안전총괄책임자인 던킨도너츠 생산센터 생산지원팀 김장훈 차장은 그 첫 번째 단계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택했다.



비알코리아



매일같이 33만 개의 도넛을 만들어 전국 던킨도너츠 가맹점에 전한다. 그렇기에 비알코리아는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런데 안전한 식품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알코리아에서는 바른 먹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글 강진우 | 사진 안용길(도트 스튜디오)





“먼저 2016년 말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생산공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규모가 가장 큰 안양공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한 뒤 나머지 중·소형 공장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2017년 초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뒤, 계획한 대로 그해 12월에 안양공장이 KOSHA18001과 OHSAS18001 인증을 받았습니 다. 뒤이어 나머지 공장 도입에도 박차를 가했고, 올 6월 전국 전 공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9개 전 공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다. 비알코리아뿐만 아니라 던킨도너츠 사업부 협력사 3곳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작업 전반을 협력사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에 이를 수 있었던 값진 결과였다. 덕분에 던킨도너츠 생산공장의 안전은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었다.

‘화재 방호벽’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분야는 바로 ‘화재 예방’이다. 도넛을 만들 때는 기름에 반죽을 튀기는 유탕처리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때 발생하는 고열과 유증기로 인해 불이 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 비알코리아는 이를 막기 위해 ‘화재 예방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짜 냈다.

비알코리아의 화재 예방책은 생산 공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도넛 생산 라인 중에는 튀김기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화재 예방 설비를 겹겹이 둘러쳐 놓았다. 기름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기름이 필요량보다 적어 화재 위험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설비 전원이 차단된다. 튀김기 위쪽에는 유증기를 빨아들이는 대형 후드와 공장 내 유증기 확산을 막는 유리벽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화재 시 즉각적으로 작동되는 확산소화기를 설치, 초기 진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초기 진압 확률을 한층 높일 수 있는 K급 소화기와 소방포도

“

내년 상반기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점점
더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반복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
이를 통해 ‘식품안전과 산업안전이
조화된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게
비알코리아의 당찬 각오다.

”

튀김기 근방에 있다.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하게 마련해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비알코리아는 화재 발생 시 대응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화재 사고는 그 특성상 상황 전파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소화전과 더불어 소형 소화전을 튀김 공정에 설치, 화재 즉시 전 공장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근로자들의 빠른 탈출을 돕기 위해 패닉바 손잡이와 잠금장치 없는 스윙도어도 설치했다.

“화재 조치 설비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와 공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소방안전교육 및 자체 훈련, SMS(문자메시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1~2회 시행합니다. 실질적인 화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호응이 유달리 좋습니다.”





식품안전과 산업안전의 완벽한 조화를 꿈꾸다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비알코리아는 협력사의 안전보건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전국 9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협력사 직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알코리아는 모든 안전보건활동을 협력사와 함께 한다. 안전 캠페인 활동 시 진행되는 결의대회·아차사고경진대회·특별점검 등 모든 프로그램을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소화기 및 소화전 교육·SMS 훈련·소방서 합동훈련도 당연히 협력사와 긴밀히 소통·운영하고 있다.

한편 비알코리아는 협력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건강관리실을 연중 365일 개방, 보건관리자의 체계



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몸이 안 좋은 직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피로 해소를 위해 시각장애인으로서 구성된 전문 헬스키퍼로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전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두드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직원 휴게실에 최고급 안마의자를 비치, 휴식시간을 이용해 언제든지 몸을 풀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임직원 및 협력사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펼친 결과, 비알코리아의 안전지수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SPC그룹은 매 분기 1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7위 언저리에 머무르던 성적이 올 1·2 분기에는 1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한 공장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재화와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점점 더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반복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 이를 통해 '식품안전과 산업안전이 조화된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게 비알코리아의 당찬 각오다. '안전하게 만든 바른 먹거리'를 향한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MINIINTERVIEW

비알코리아 사업장,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은 평소에 지켜야 한다

임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안전에 대한 노력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공장 곳곳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가장 위험성이 높은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교육 및 소방서와의 합동훈련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안전은 평소에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전보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던킨도너츠 생산센터 안철현 상무



안전에 예외란 없습니다!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활동하며 철칙으로 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외는 없다' 인데요. 안전활동 시 자꾸 예외를 두게 되면 안전과 관련된 원칙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자칫 까다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예외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행히 모든 임직원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해 주신 덕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이후 안전사고 '0건'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로 앞으로도 안전에 예외란 결코 없습니다!

- 생산지원팀 김장훈 차장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와 소비자도 행복합니다

비알코리아는 직원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행복하게 일해야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곧 소비자와 회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려면 당연히 일터가 안전해야 하죠. 이렇듯 안전은 행복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말하자면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비알코리아는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생산지원팀 권태형 과장



비알코리아의 '안전한 공생', 매우 만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사와 협력사 사이에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기 마련인데요. 비알코리아는 모든 안전보건활동에 있어 협력사 직원들과 본사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고, 이에 걸맞은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꾸준히 갖춰 나가고 있죠. 덕분에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와 안전보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으쌔으쌔'해서 보다 안전한 비알코리아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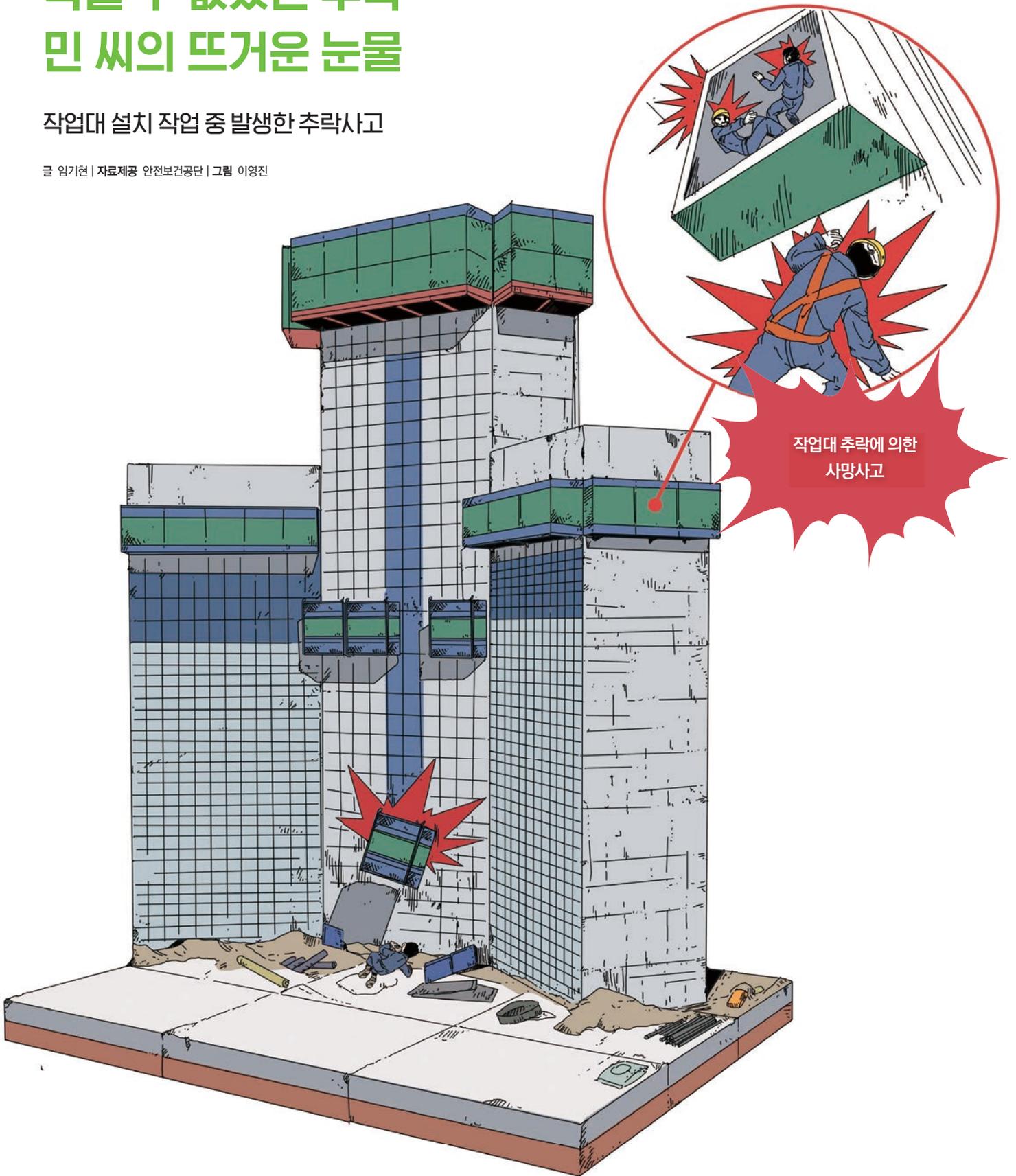
- 하나산업(협력사) 생산팀 이관희 지점장



막을 수 없었던 추락 민 씨의 뜨거운 눈물

작업대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글 임기현 |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 그림 이영진



건물 외벽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

당해 공사의 외벽 마감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PCS 작업대는 고층 또는 초고층건축에 많이 사용되는데, 고소작업에서 많이 쓰이는 만큼 추락의 위험도 산재해 있어 유념해야 한다.

커튼월이 적용된 극초고층 건설현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원에 위치한 건설현장.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극초고층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펼쳐지는 이곳에, 전설처럼 여겨지는 건설업계의 안전감독관 민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 씨가 전설처럼 여겨지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작업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고 감시하는지, 민 씨가 감독하는 건설현장은 여태껏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동료 작업자들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여겨졌던 민 씨!

“민 씨 덕분에 이번 현장은 보나마나 안전하겠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건설현장은 마음을 놓는 순간 위험해진다구요.”

“알지 알아. 그래도 나는 민 씨가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걸? 잘 부탁해 우리의 영원한 부적님!”

동료의 짓궂은 농담에 머리를 긁적이며 건설현장을 둘러보던 민 씨는 100층이 넘는 극초고층 건설현장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건설현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투입되는 노동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와 비례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의 발생 사례 또한 증가되기 때문이었다.

감독관으로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길 바라는 민 씨는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다. 특히 커튼월 설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작업절차를 꼼꼼히 설명했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발을 딛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작업대의 부재 조립부터 고정작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허투루 흘리지 않고 매의 눈으로 감독했다.

8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처참한 추락현장

쉽지 않은 작업인 만큼 민 씨의 예민함이 극에 달할 무렵, 커튼월은 안정적으로 고정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커튼월 설치를 마친 작업대를 상승시키기 위해 작동을 시키자마자 추락사고는 발생했다. 사고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있던 작업자 3명은 200m 아래 까마득한 지상층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게 처참한 모습으로 즉사했다. 인명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상 1층에 있던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 1명과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4명이 떨어지는 작업대의 부재 등에 맞아 1명은 사망하고 4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다.

민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상황을 지켜볼 수만도 없었다. 즉시 119를 불렀고, 그렇게 8명의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작업대 설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안전감독관 민 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왜 발생한 것일까. 사고 현장 분석 결과 ‘슈 브라켓 고정용 콘’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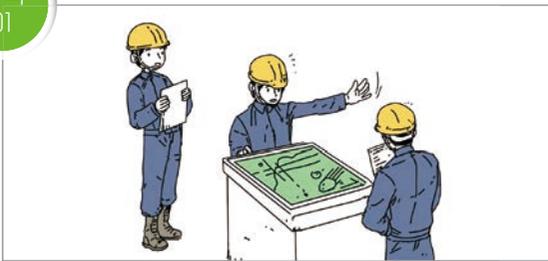
타이로드와 결합할 때 준수했어야 할 최소 결합 깊이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사고를 불러일으킨 결합 깊이는 11.5mm로, 이는 결합 가능 최대깊이인 65mm의 약 18%에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꺼번에 8명의 작업자를 잃게 된 민 씨. 그를 영원한 부적이라고 여겼던 작업자들에 대한 깊은 슬픔으로 민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건물 외벽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예방책

사업주는 기계에 부착된 볼트·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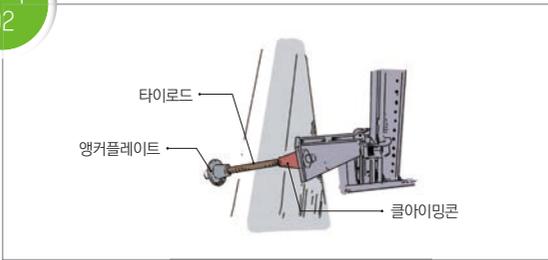
대책 0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건물 외벽 작업대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내부에 지지용 앵커 매입·설치 시 설계도서에 따라 처음 시공한 형태로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까지 변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책 02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 체결상태, 꼭 확인하세요

PCS 작업대를 지지하는 슈 브라켓 고정용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 결합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보다 짧게 결합하면 작업대의 자중 및 작업하중, 풍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클라이밍 콘이 타이로드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대책 03



관리감독자가 필요합니다

커튼월 작업용 PCS 작업대 상승작업 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산재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대책 04



출입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높이 5m 이상의 비계(작업대)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높은 만큼, 해당 작업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Step 03

건물 외벽작업 중 안전조치 관련 규정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는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며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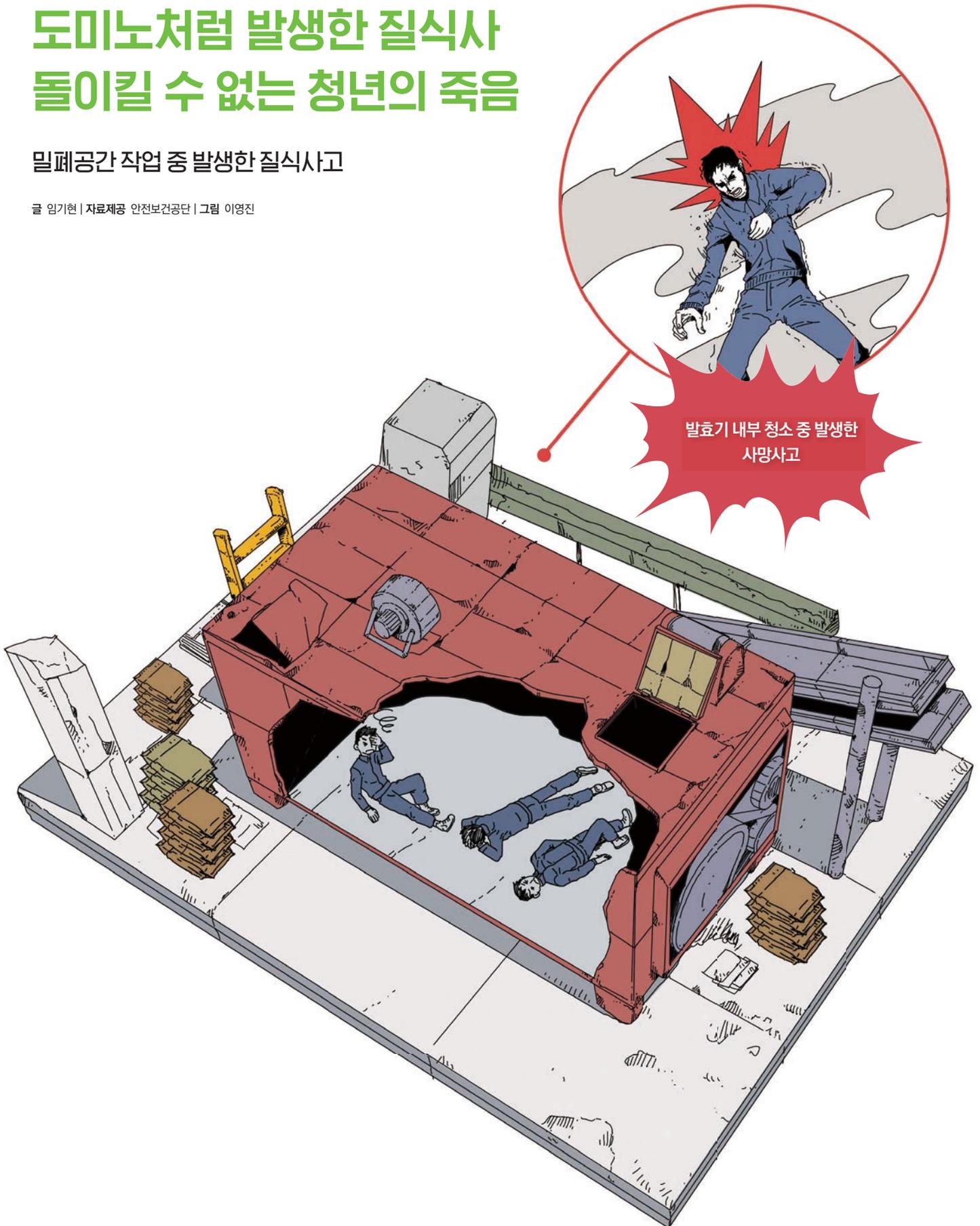
사업주는 기계에 부착된 볼트·너트가 풀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도미노처럼 발생한 질식사 돌이킬 수 없는 청년의 죽음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

글 임기현 |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 그림 이영진



Step 01

발효기 내부 청소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

질식위험장소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소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가스농도 측정은 물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만약을 대비한 대피용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고체발효기 청소하는 날 벌어진 참사

문경에 위치한 사료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고 씨.
그간 취직이 어려워 마음고생이 심했던 고 씨는 ‘요즘처럼 하루 하루가 즐거웠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었다.
고 씨가 사료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주업무는 곡물, 건초, 당밀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축들이 먹을 사료를 만드는 일.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고 씨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성실함을 인정받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다.
“고 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알고 말고요. 고체발효기 청소하는 날 아납니까!”
“역시 똑 소리 난단 말이야.”
고체발효기는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주원료들을 발효시키는 기계로, 고 씨가 근무하는 사료사업소에서는 원활한 기계 작동을 위해 월1회 내부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참 이상하네. 사업장 곳곳에 언제 이렇게 거미줄이 많이 생겼지?”
“거미줄이요? 아... 그리고 보니 여기저기 장난이 아니네요.”
“거미줄부터 제거하고 작업 시작할까?”
“그럼 제가 고체발효기 맨홀 덮개부터 개방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니까.”
눈치 백단으로 일하는 고 씨가 흐뭇하기만 한 선배 정 씨.
하지만 잠시 후 벌어질 참사를 정 씨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 홀로 실시한 작업이 불러일으킨 최후

사업장 곳곳에 있는 거미줄 제거작업에 정신이 빼긴 정 씨는 문득 고 씨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미줄 제거하다 말고 어디로 갔지? 설마 혼자 발효기 내부 청소한다고 간 것은 아니겠지...”
정 씨가 걱정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평소 시키지 않는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던 고 씨의 열정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몇 번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짜한 기분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김 씨! 고 씨 못 봤어?”
“아까 발효기 청소한다고 가는 것 같던데, 정 씨랑 같이 간 것 아니었어?”
짧은 대화를 마친 둘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고, 정 씨와 김 씨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체발효기 쪽으로 달려갔다. 불안한 예상은 적중했다.
고 씨가 발효기 내부에 쓰러져 미동조차 없었던 것이다.
정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작업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한 후 발효기 내부로 들어갔다. 하지만 발효기 내부는 이미 산소농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구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정 씨는 들어가자마자 쓰러졌고, 이를 지켜보던 김 씨 역시 급한 마음에 내부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다. 1명의 재해자가 순식간에 3명으로 늘어난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이 안전부절하는 사이, 마침내 도착한 119구급대는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펼쳤다. 발효기 내부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정 씨와 김 씨는 다행히 산소흡입 등의 응급조치로 목숨을 건졌지만,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구출된 최초의 재해자 고 씨는 안타까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 예방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만일의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감시인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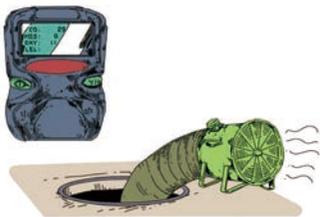
대책
01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세요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우 순식간에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조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대책
02



작업 전과 중간에 환기를 실시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실시 전과 중간에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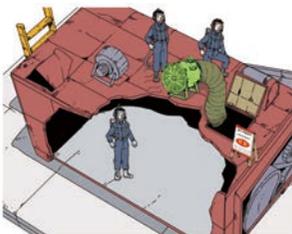
대책
03



출입금지표지 설치 및 안전장비구비

출입구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작업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어쩔 수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책
04



감시인을 배치하세요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상시 작업 상황을 감독하고,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Step 03

밀폐공간 작업 중 안전조치 관련 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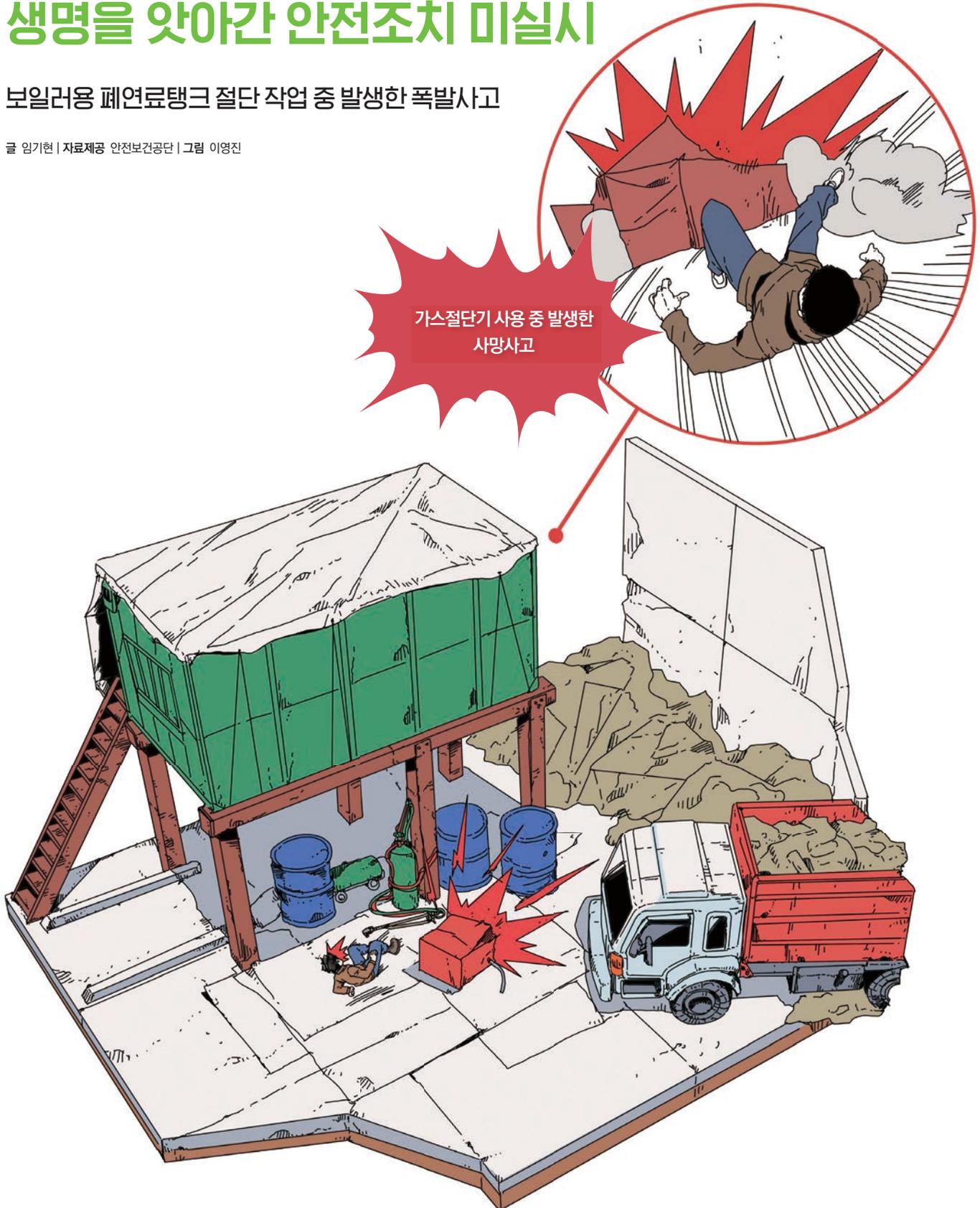
[전문개정 2017.3.3.]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순식간에 벌어진 폭발, 생명을 앗아간 안전조치 미실시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절단 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

글 임기현 | 자료제공 안전보건공단 | 그림 이영진



가스절단기 사용 중 발생한
사망사고

폐연료탱크 절단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

사업주는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등을 절단할 시, 화재예방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등을 금지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책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및 화재진압용 물품 등을 비치해야 한다.

폐연료탱크의 마지막 발악 '폭발'

뜨거운 태양이 기승을 부리는 어느 7월의 오후.
굴삭기로 고철을 압축한 후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를 다니는 조 씨는 일찌감치 출근준비를 마쳤다. 회사에 도착하니 오늘 작업해야 할 고철이 상당했다.
그중 조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보일러용 폐연료탱크는 탱크 안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에 비하면 꽤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다. 폭발 위험도 있어 조 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폐연료탱크 압축작업을 꺼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숨씨 좋기로 유명한 조 씨에게 이 정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작업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 시작한 조 씨는 우선 보일러용 폐연료탱크에 잔존하는 유증기를 빼내기 위해 물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 씨는 곧장 가스절단기로 절단 작업을 시작했다.
손 빠른 조 씨의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던 동료들은 감탄했고, 동료들을 의식한 조 씨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붙어 더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던 절단 작업!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약 10초 뒤, 아수라장이 될 현장을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안전수칙 없었던 화재의 현장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조 씨의 작업현장.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폐연료탱크는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폭발하고 말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거대한 폭발이었다. 지켜보던 동료들이 놀라 119에 긴급 신고를 했지만, 조 씨의 몸에는 이미 폭발에 의한 불꽃이 붙은 상태였다.
“앗, 뜨거!”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닥을 뒹구는 조 씨! 이를 지켜보던 동료 한 명이 긴급하게 물을 구하려 했지만 조 씨가 있는 곳까지 물을 뿌리려면 긴 호스가 필요했다.
“호스, 어디 있어!”
안타깝게도 작업현장 어디에도 호스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조 씨의 몸에 붙은 불은 점점 더 위세를 더해가기만 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불을 끌 수 있었던 사고현장. 결국 조 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렇다면 폐연료탱크는 왜 갑자기 폭발한 것일까.
재해발생 원인 추정 결과, 조 씨는 폐연료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지기 전 가스절단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이 가득 찬 후에야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무시한 결과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폐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70여 분이었으나, 조 씨가 물호스를 연결한 후 절단 작업이 시작되기까지는 고작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폭발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조 씨. 그의 사망진단서가 더욱 가슴 아팠던 이유였다.

폐연료탱크 절단 작업에 의한 폭발사고 예방책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시, 화기작업에 따른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책 01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및 소방설비활용교육을 하세요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및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하며,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및 소방설비활용 교육을 하세요.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난교육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책 02



유증기를 말끔히 제거하세요

내부에 잔존하는 등유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가스절단기의 불꽃을 만나면 폭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스절단기를 사용해 보일러용 폐연료탱크 등을 절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부에 잔존하는 유증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대책 03



화재사고에 대비하세요

사업주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관 또는 탱크를 취급할 시, 반드시 화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하며,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 화재 발생 시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용접장소에는 약 1,000ℓ 이상의 물을 준비해야 하며 불연성 포(칸막이), 마른모래, 소화기 2대를 갖춰야 합니다.

Step 03

폐연료탱크 절단작업 중 안전조치 관련 규정

사업주는 폭발 및 화재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작업을 피해야 한다.

▲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으로 한다)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3.>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
(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단단하게 굳힌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생산본부
안전보건환경실 황현 실장

‘안전의 근본’



개인보호구는 ‘안전한 산업현장’의 필수 조건이다. 이는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황 현 실장도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개인보호구 착용을 강조하기에 앞서 ‘위험한 작업’ 그 자체를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것. 그렇기에 황 현 실장의 안전관리활동은 근본적이고, 또한 단단하다.

글 강진우 | 사진 안용길(도트 스튜디오)

PROFILE

이름 : 황 현

나이 : 만 49세

현장 경력 : 25년

특기 : 세심한 관찰력과 사람을 움직이는 인자함

특이사항 : 그에게 일방적인 지시는 없다. 특유의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책을 도출해, 근로자들을 끝내 ‘안전시대’로 끌어들이는다.

‘안전관리활동 4단계’로 위험요소를 뿌리 뽑다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1978년 1월에 설립, 현재 연간 750만 톤에 이르는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 규모가 거대한 만큼 근로자도 상당수. 한라시멘트 임직원 390여 명과 협력사 임직원 500여 명의 안전보건을 위해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안전보건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환경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황 현 실장은 바로 이 안전보건환경실의 수장이다.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만큼, 황 현 실장은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안전관리활동 4단계’이다. 시멘트 제조업은 특성상 화재·붕괴·추락·소음·분진·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데, 안전관리활동 4단계를 통해 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제거’다.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조 공정이나 생산 라인을 개선·보완해, 근로자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생산한 시멘트를 선박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기존에는 시멘트 선적 작업 시 비산먼지 방지용 슈트를 선박 홀드 위에 씌우는 방식을 썼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가 슈트를 바닥인 줄 알고 밟았다가 홀드 내부로 추락하는 등의 위험 가능성이 상존했다. 이를 인지한 황 현 실장은 창고 위에 아예 철판을 설치, 추락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이렇듯 안전보건환경실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가장 먼저 힘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한다면 현장에 고정식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대체’다. 추락 위험이 있는 굴뚝의 수직 사다리 대신 공장 옥상과 굴뚝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철타다리를 설치한 것이다. 두 번째도 힘들다면 세번째 단계인 ‘기술적인 방안’이 등장한다. 작업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철저하게 마련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이다. 여기엔 위험성평가·안전교육·안전작업표준서·개인안전장구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 단계인 ‘관리적 방안·개인보호구’까지 더하고 나면 안전관리활동 4단계가 완성된다. 황 현 실장이 이 같은 안전관리활동 매뉴얼을 정착시킨 덕분에,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한층 안전한 산업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안전관찰활동’으로 빛어낸 ‘사람 중심 안전’

지난 2007년,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의 안전이 위기를 맞았다.

유독 그해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 이를 계기로 옥계공장은 외부로부터의 안전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의외의 결과와 마주했다. 설비 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은 훌륭하지만,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이었다. 안전사고의 96%는 따지고 보면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한다는 이야기도 뒤따랐다. 이때부터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안전보건활동의 방향을 수정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찰활동’을 전격 도입한 것이다.

“안전관찰이란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안전대화’를 통해 안전한 행동으로 바꾸는 일종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근로자의 미비한 안전보건활동을 단순히 지적하고 시정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작업자 스스로 안전보건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황 현 실장과 안전보건환경실은 안전관찰활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소위 ‘안전대화 6단계’라 불리는 대화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작업 모습을 충분히 ‘관찰’한다. 이때 불안정한 행동과 잘 지키고 있는 안전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잘 지키고 있는 안전사항에 대해 ‘칭찬’한다. 안전관리감독자 혹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거부감과 마음의 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풀어졌다면 불안정한 행동을 없앨 수 있는 안전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열린 소통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근로자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후 해당 안전사항을 지키겠다는 ‘동의’를 얻어 내고, 더불어 다른 안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보건활동에 동참해준 데 대한 ‘감사’를 전한다.

안전에 대한 3가지 생각

안전이란 ‘인 여정’이다.

안전보건은 이론교육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한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현장에서의 실천을 유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전보건 문화를 만들어야만 ‘진짜 안전보건’이 성립된다.

가장 중요한 안전 보건 장비는

‘안전교육센터’이다.

안전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물며 사내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공장의 안전보건교육센터는 교육의 꾸준함과 내실을 모두 가져다주는 보물 같은 존재다.

하루 중 가장 안전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간은

‘휴일’이다.

우리 공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가기 때문에 휴일에도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데, 이때 근로자들의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이고 안전보건활동도 자연스럽고 느슨해진다. 따라서 휴일에 특히 안전보건활동 및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 안전관찰이란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안전대화’를 통해 안전한 행동으로 바꾸는 일종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근로자의 미비한 안전보건활동을 단순히 지적하고 시정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작업자 스스로 안전보건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

초창기 전담 근로자를 순번제로 운영할 정도로 안전관찰활동 정착에 신경 쓴 결과, 지금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옥계공장 곳곳에서 안전대화가 수시로 이뤄진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안전사항 준수율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사람 중심 안전’은 이렇게,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전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꾸준함과 내실의 상징, ‘안전교육센터’

안전보건활동의 주요 덕목 중 하나는 ‘꾸준함’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전보건문화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진정한 의미의 안전보건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다.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안전보건교육시설인 ‘안전교육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교육센터는 지난 2009년, 옥계공장 임직원들의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안전보건의 달 행사 등 특정 기간에 임시 부스를 마련해 교육을 시키는 정도였다. 하지만 일회성 교육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장 내 빈 곳을 활용,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임직원들의 의견과 손으로 만들었기에, 안전보건교육센터는 높은 실천성을 자랑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 유형을 고스란히 센터 내로 옮겨 놓았다. 6개로 시작했던 테마가 현재는 14개로 대폭 늘어났다. 교육 대상도 한라시멘트 전 임직원과 협력사 전 임직원에서 타 기업 임직원·명예산업안전감독관·지역주민 등으로 넓혔다. 덕분에 안전교육센터는 강원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안전보건교육의 장이자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의 강력한 안전보건활동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관리직 임직원 100여 명이 전부 한 개 테마씩 맡아 센터 강사로 활약하고 있고, 저 또한 고소작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직 또한 안전교육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합니다. 옥계공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다는 방증이죠. 물론 안전보건활동에는 100%가 없으니 아직도 채워야 할 게 많지만,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이 많이 안전해졌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덕분에 안전보건환경실장으로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웃음)”

한라시멘트 옥계공장과 황 현 실장의 안전보건활동에는 흔들림이 없다.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으니 층수를 올리는 데 거리낌이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오늘도 안전관리활동 4단계로, 안전관찰활동으로, 꾸준하고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그 굳건함이 자못 믿음직스럽다.

Mini Interview

생산본부 공장생산팀
류영호 부장



“황 현 실장님은 아직도 매일같이 현장에 다니십니다. 작업자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둘러보고, 관리·감독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유도해 주시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안전보건환경실
여기동 사원



“황 현 실장님을 보고 있노라면 ‘근본’이라는 단어가 절로 생각납니다. 단순히 지금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니라,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시기 때문이죠. 저도 실장님의 이러한 업무 원칙을 열심히 보고 배워서 더욱더 안전한 옥계공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안전 현장 실천하기!

LOTOTO

'Lock Out(에너지원 잠금)·Tag Out(태그 부착)·Try Out(설비 가동 체크)'의 줄임말로, 작업 시 해당 설비의 에너지원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전 임직원이 각자의 전용 자물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설비가 가동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안전교육센터

벨트컨베이어·에너지차단·고소작업·소방안전·공기구 및 화기작업·응급처치·보건·밀폐공간·스톡&서지파일·가정안전·이동장비안전·개인보호구·도로수송안전 등 14개 작업현장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각 테마별로 전문 사내강사가 배치되어 있다.



고소작업 방지용 조명등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의 전구를 교체하려면 자연스럽게 고소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옥계공장 조명등의 전신주는 작업자가 바닥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라 스트레칭 체조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1시, 옥계공장 전역에 음악이 울려 퍼진다. 임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일손을 놓고 '한라 스트레칭 체조'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옥계공장 식구들은 업무 전 굳었던 몸을 풀고, 동시에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다.





**튀어나온 핏줄 없는데
하지정맥류?**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일수록
유념하세요!**

서울의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한모 씨(34세 여성)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붓는 불편감을 느끼다 최근에는 종아리 붓기의 정도가 심하고 발바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환자의 다리가 붓는 이유는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인 만성정맥부전으로 판명되었다. 환자는 처음에는 다리에 튀어나온 핏줄이 없어서 진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다소 혼란스러워 했다.

글 박상우(건국대학교병원 팔다리혈관센터장)

지속적으로 다리가 붓는다면,

다리 건강 적신호 의심해야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라 하면 다리에 있는 핏줄이 밖에서 보일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로만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지정맥류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정맥류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질병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지정맥류는 질병명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임상증상 중 하나이다.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인 만성정맥부전이 바로 질병명이며 하지정맥류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 하나인 것이다.

실제로 만성정맥부전의 경우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하지정맥류 같이 핏줄이 튀어나오는 형태로 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다리가 붓거나 밤에 쥐가 잘나거나 궤양이 생기는 등의 다양한 임상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만, 이중 육안으로 눈에 띄기 쉽고 알아채기 쉬운 것이 하지정맥류라서 하지정맥류를 만성정맥부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 종아리가 붓는 경우, 밤에 쥐가 잘나는 경우 등이 모두 하나의 원인 질환인 만성정맥부전을 뿌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본 환자분도 하지정맥류는 없지만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인 만성정맥부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질환이 핏줄이 튀어나오는 것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 종아리가 붓는 형태로 발현을 한 것이다.

오랫동안 서 있을수록 발병 가능성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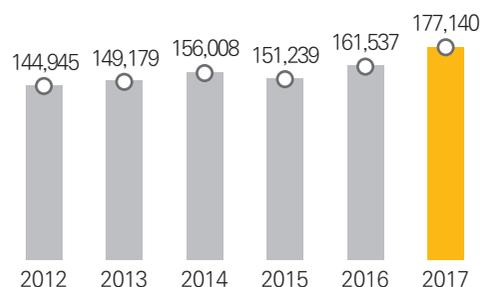
만성정맥부전 환자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왜 생기는가'이다.

이 부분에는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딱 부러지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랫동안 서있을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사람의 정맥은 동맥과 달리 압력이 낮기 때문에 피를 심장으로 끌고 올라가려면 근육의 움직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서있게 된다면 중력의 영향에 따른 정맥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결국 정맥 이상에 따른 정맥피의 역류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 역류가 하지정맥류 또는 다리가 붓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본 환자분도 오랫동안 백화점 매장에서 서서 일하였다는 점이 만성정맥부전이 발현되는데 일부분 원인이 될 수 있다.

2012~2017 하지정맥류 환자 수 (단위 : 명)



다리 건강 지키려면 평소 관리가 중요해

만성정맥부전 발병에는 유전적인 요소, 호르몬 등의 영향을 비롯해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이 오래 서있는 직업이라 해서 반드시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만 몰고 갈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성정맥부전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성정맥부전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질환이 생기기 전이라면 자주 걸어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좋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까치발이라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 정맥 순환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할 수 없이 오래 서있는 경우를 반복해야 한다면 압박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취침 시에는 다리 아래 베개나 담요를 두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는 것이 좋다.

이해 부족으로 치료시기 놓치면 안 돼

만성정맥부전의 치료는 하지정맥류 치료와 같다. 다만 직접 제거해야할 튀어나온 정맥은 없고 만성정맥부전만 치료하면 되므로 하지정맥류 치료보다 더 간단하다. 과거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이 치료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는 레이저와 고주파처럼 열을 이용하여 혈관을 태우는 치료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도 치료방법 중 하나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1~2시간 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고 흉터가 남지 않으며, 대부분 국소 마취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생체적합성 접착제를 이용한 치료방법이 나와서 치료 후 환자가 더 이상 스타킹을 신을 필요가 없어지는 등 한결 간편해졌다. 이 모든 치료방법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 개념이다. 따라서 수술에 비해 시간이 짧고 통증도 거의 없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 역시 매우 빠르다.

다리가 붓는 환자들의 경우 만성정맥부전 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이들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단한 피검사와 혈관초음파 검사로 그 원인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도 간단한 만큼 더 이상 만성정맥부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듯하다.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리가 지속적으로 붓는다면,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병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병원을 방문하길 바란다. 치료 후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진즉 와서 치료 받을 걸 그랬어요”이다. 기다리지 마시라. 만성정맥부전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다.

다리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지정맥류는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

Yes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약 3배 높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하지정맥류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장시간 서거나 앉아있는 직업, 마라톤 같이 하체에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운동, 비만, 음주 등 다양한 후천적 요인이 하지정맥류 발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정맥류에는 더운찜질이 좋다?

No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혈액순환 장애가 문제라고 생각해 더운찜질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반신욕이나 더운찜질 등처럼 하체만 덥히는 대중요법은 혈관을 확장시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리 붓기 예방하는 작은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어야 하는 학생이나 사무직 근로자, 혹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하체부종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하체부종을 방지할 경우 심하게는 하지정맥류와 같은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하게 앉아 일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의 의자를 제공하고 근로자 또한 평소 예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리 꼬지 마세요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허벅지의 혈류순환이 줄어들어 종아리가 붓게 된다. 장시간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 골반이 비틀어지는 골반변위도 유발될 수 있으니, 의자에 앉을 때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하이힐은 안돼요

하이힐은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신발의 구조상 무게중심을 후트러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어야 하는 경우라면 수시로 까치발을 들어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짠 음식을 멀리하세요

짠 음식은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다리부종을 촉진시킨다.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순간의 짜릿한 행복이 내 몸을 망가트린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

다른 부위보다 다리의 위치가 낮으면 압력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잠을 잘 때에는 종아리 아래에 베개 등을 두는 것이 좋고, 책상 아래에는 다리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을 두는 것이 좋다.

몸에 딱 맞는 옷은 멀리하세요

다리를 압박하는 레깅스, 스키니 등 몸에 너무 타이트한 옷은 혈관을 눌러 혈액순환을 저하시킨다. 다리에 무리가 갈 정도의 옷은 피하되, 할 수 없이 오래 서 있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직업군이라면 압박스타킹(일반스타킹과 달리 일정 이상의 압력 유지가 가능한 의료용 스타킹)을 신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발가락 운동으로 인대를 강화시키세요

하체의 인대가 약해지면 근육을 튼튼하게 잡아 주지 못해 근육이 쉽게 부어오르게 된다. 따라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발가락 운동이라도 시도해보자. 발가락은 우리 몸에서 인대의 분포가 가장 많은 부위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 출처 : 날씬한 그녀들의 오피스 스트레칭

들쭉날쭉한 수입, 분노하는 마음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상담실을 찾은 어느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대출금에, 앞으로 들어갈 아이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아내 얼굴 보기도 미안하다고 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로서 그가 짊어진 커다란 무게가 상담하는 시간 내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글 강민현 (행복심리센터 원장)



분노로 이어지는 극심한 스트레스

대기업을 다니던 A씨는 은퇴 후 작은 치킨집 하나를 차렸다. 은퇴 후 생활을 무료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은퇴 전부터 약 2년간 자영업 준비했다고 했다. 60세 즈음 새로 시작한 삶. 하지만 퇴직금을 전부 투자해 차린 치킨집은 생각처럼 운영이 쉽지 않았고, 그는 그동안 어렵사리 모은 퇴직금을 가게 월세로 모두 날리고 있었다.

“다달이 월세는 나가지,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게를 그만 두기엔 투자한 퇴직금이 아까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게의 폐업 여부를 내게 물어오던 A씨가 그리 낯설지 않았던 것은 비슷한 고민으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들쭉날쭉한 수입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상상 그 이상이다.

심하면 세상을 향한 분노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B씨의 경우가 그랬다.

B씨는 직장을 그만둔 후 30대 초반부터 커피숍을 운영했다고 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돼 그리 큰 걱정은 없었지만, B씨의 가게가 있는 동네가 방송을 탄 이후부터는 가게 월세가 폭등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것이 얼마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건물주가 야속했어요. 단골고객도 많아져서 가게를 처분하기도 그랬고요. ‘열심히 해서 나도 건물주가 돼야지!’ 하는 심정으로 비싸진 월세를 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세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분노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건물주를 향한 분노가 대단해 보였던 B씨는 “자신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 역시 일조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결국 높은 월세가 세상을 향한 분노로 폭발한 것이다.

A와 B씨의 경우처럼 환경적 원인으로 스스로 선택이 제한될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분노장애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간헐적 폭발성 분노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 간헐적 폭발성 분노장애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노조절장애’의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다.

분노해소를 위해서는 ‘나 전달법’이 필요해

분노조절장애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됐거나 화가 과도하게 쌓인 경우 감정이 자극되면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들 뿐 아니라, 대인관계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하면 분노를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퇴화하면서 만성적 분노로 이어지게 돼 심각성을 더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분노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분노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무조건 참기보다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당황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드는 등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면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이다.

A와 B씨 역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족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A씨는 “가게운영이 어렵게 된 후부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가족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 가운데 “가게운영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남편이 상당히 거칠어졌다. 불안하다”며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노하고, 이와 동시에 아내는 남편의 생각이 읽히지 않아 원인 모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 대화법’이다. 쉽게 말해 “너가 이랬잖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래서 그런거야” 등처럼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심리상태’를 먼저 말하는 방식이다.

‘너’로 시작하는 대화방식은 상대방에 대한 힐난과 비판으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 ‘나’로 시작하는 대화방식은 나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다. 분노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응원과 지지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해

분노조절장애가 지속돼 만성으로 이어지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그리 심각하게 여길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면 고통은 두 배가 된다. 분노의 정서란 스스로 해결하기 보단 주변인들의 도움이 있을 때 훨씬 회복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분노의 정서는 결국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누군가 '부정적인 감정을 버려라' 또는 '긍정적

으로 생각해'라고 한다면,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 대부분은 '말이 쉽지, 결과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욱'하는 심정이 들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으나, 언제까지나 현실을 탓하거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분노의 감정이 심하지 않다면 전문가를 만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을 제안하고, 분노의 감정이 심해 타인의 조언을 수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길 권한다.

분노 가라앉히는 노하우 Best 3

1 승패가 있는 게임하기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을 통해 순간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가위바위보에서 지기, 369게임 등처럼 지는 순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2 명상호흡 하기

호흡은 심장변이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길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통해 불안과 분노가 조절되는 것인데, 깊은 호흡은 빨리 뛰는 심박수와 심박변이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

3 등산 즐기기

심장기능을 강화시키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등산 역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을 다스려주는 역할을 한다. 등산이 어렵다면 자기 전 100번 절하기 등처럼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노조절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1 참지 마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거나 애써 무시하면 언젠간 폭발하고 만다는 것이다. 가까운 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등,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

2 자신의 분노 신호를 파악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본인이 빨리 자각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상태를 알아야 폭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등 자신만의 분노 신호를 알아두고, 분노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는 차분하게 숫자를 세거나, 깊이 숨을 쉬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소리 내서 울거나 글쓰기를 하세요

소리 내서 울기, 편지나 일기 쓰기 등처럼 습작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좋다.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통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이나 책상 위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화를 억제하는 문구를 써놓는 것도 좋다.

SAFETY GUIDE | 내 안에 분노 있다? 분노조절장애 자기진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약간 그렇다 2점 / 꽤 그렇다 3점 / 확실히 그렇다 4점

*출처 : 대한정신건강의학과협회

	항 목	점 수
1	나는 때때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그의 험담을 늘어놓는다.	
2	나는 화가 나면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진다.	
3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의 입장을 무시하고 내 입장만 말한다.	
4	사람들이 내게 호통을 치면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5	나는 매우 흥분했을 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6	나는 때때로 시비조로 행동한다.	
7	나는 거짓말을 한다.	
8	나는 논쟁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9	나는 궁지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끝까지 추적해서 싸운다.	
10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결 과

26~27점 사이라면 약간 위험, 28~29점 사이는 위험, 30점 이상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다만, 약간 위험과 매우 위험한 상태의 점수 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위험군'에 속한 경우라면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빨리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자.

분노조절장애는 병이 아닌 우울증의 한 가지 증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전전두엽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생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화를 식이는 사람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다.

분노조절을 치료하는 방법은 감정조절 훈련이다. 면담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행동이 아닌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인 만큼, '내면의 나'를 찾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공단이 추천하는 이 달의 교육미디어



생생한 정보제공형 VR콘텐츠 이용하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실현 가능한 영상을 인간의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VR(가상현실)이라고 한다. 공단에서도 오프라인 인쇄매체 보다는 VR을 포함한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자료개발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자료는 시뮬레이터나 웨어러블 기기 없이도 인터넷이 가능한 일반PC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VR안전보건 콘텐츠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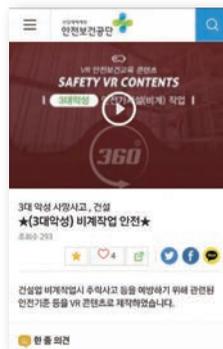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방법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HMD(플라스틱 완성형 또는 카드보드형)를 활용하면 보다 실감나게 볼 수 있다.

접속방법 : 360vr.kosha.or.kr 입력



▲ VR전용관 메인 화면 (스마트폰)



▲ 콘텐츠 접속 화면



▲ 360도 화면

PC(태블릿) 이용방법

PC에서 VR전용관(http://360vr.kosha.or.kr)을 접속한 후 360도 파노라마 모드를 이용하면 마치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사업장 내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및 예방대책 확인 가능



▲ 메인화면 접속



▲ VR전용관 메인 화면(PC)

TIP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정보제공형 VR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052-703-0695~8에 전화하셔서
VR콘텐츠 무료 제작을 문의하세요!



▲ HMD 사용시 듀얼화면



▲ HMD



개발목록

제조업

- 프레임 등 금속제품 제조
- 금속가구 제조업(분체도장)
- 금속가구 제조업(시트커버작업)
- 금속가공
- 스폿 아르곤 용접작업(필터 하우징)
- 사출작업(필터 하우징)
- 대형 프레스 가공작업(필터 하우징)
- 프레스 가공작업(필터 하우징)
- 부대작업(레미콘 제조)
- 계량 및 혼합 작업(레미콘 제조)
- 재료이송 작업(레미콘 제조)
- 입고 및 재료 저장(레미콘 제조)

건설업

- 비계작업 안전
- 거푸집동바리 작업안전
- 콘크리트 작업안전
- 작업발판 작업안전
- 추락방호망 작업안전
- 이동식사다리 작업안전
- 개구부 작업안전
-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 거푸집동바리 조립작업
- 거푸집동바리 자재반입
- 거푸집동바리 인양작업
- 콘크리트 장비반입 작업
- 콘크리트 반입 운반작업
- 콘크리트 타설 다짐작업
- 콘크리트 양생작업

서비스업

- 오폐수처리장 질식재해
- 쓰레기 분리 종사자
- 대형병원 조리 종사자
- 세탁작업 종사자
- 대형마트 축산물판매
- 커피 및 디저트 전문점 종사자
- 대형마트 직원식당 종사자
- 대형마트 수산물판매
- 제빵제과 종사자
- 양식조리 종사자
- 일식조리 종사자

작업 전 안전교육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을 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불의의 재해나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글 편집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트린빈 씨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도장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 저는 도장공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불었던 날로 기억합니다. 제가 찾은 현장은 지상 3층 높이의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라 건물주가 보수를 위해 도장작업을 의뢰한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현장과 달리 규모가 작은 곳이라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현장을 찾은 동료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반장이 조금 늦게 도착할 테니 조금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저희끼리 시작해도 될 것 같

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도 못한 채 말이에요. 저희는 도장작업을 실시해야 할 외벽에 사다리를 걸쳤습니다. 사다리 상단의 여장길이를 확보했고,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대비해 안전난간에 안전대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장을 찾은 작업반장님이 불현 듯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들은 영문을 모른 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다리가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다 내려와서 사다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본 작업반장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사다리를 고정시키지도 않고 작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안전교육도 없이 작업을 시작하다니요!”

저희는 정말이지 부끄럽고 창피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전교육만 받았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없었을 텐데...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SAFE STEP

“ 안전교육 참석하세요 ”



필리핀

Please join the safety training.

플리이즈 조인 더 세이프티 트레이닝



중국

请参加安全培训。

칭 찬짜 안취안 페신



태국

โปรดเข้าร่วมการอบรมด้าน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브롯카우루엄깐옵롬단괘브렛파이



인도네시아

Silakan bergabung dengan pelatihan keselamatan.

실라칸 브르가봉 등안 플라티한 크슬라마탄



몽골

Аюулгүй ажиллагааны сургалтанд оролцоорой.

아올귀 아질라가니 솔갈당드 어럴처러이



방글라데시

অনুগ্রহপূর্বক নিরাপত্তা জনিতপ্রশিক্ষণ এ যোগদান করুন

어녹로호볼벅 니라벌타 조니토 브르쉬켄에 족단 꼬룬



우즈베키스탄

Хавфсизлик бўйича ўқишда иштирок этинг.

하프스질리키 바이차 어크스다 이시트록 예팅



파키스탄

سیٹھی کی کلاس میں آئیے

세이프티 끼 클래스 파르 아에



스리랑카

කරුණකර ආරක්ෂිත පුහුණුවීම් සඳහා සම්බන්ධ වන්න

가루나크라 아락시따 부후누웜 산드하 삼반다 완나



네팔

सुरक्षा प्रशिक्षणमा भाग लिनुहोस्

수러차 브러시쳐느마 바그 리누호스



미얀마

လုံခြုံရေး ပညာပေး တက်ရောက်ပါ

론춘예 뵘냐뵘 땃야욱바



캄보디아

សូមចូលរួមវគ្គអប់រំសុវត្ថិភាព

썸 찌올으름 위악 업으름 쏘왓터피음



베트남

Hãy tham gia khóa đào tạo an toàn.

하이 탐자 코와 다어다어 완뵘

아이들을 위한 '생활 속 안전정보'를 알려주세요

정리 편집실 |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



저는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현장을 가까이서 보게 되다보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생각하게 되네요.

조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좋을 안전교육,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월간 <안전보건> 2018년 7월호 독자 손*호 님(남양주시) -

Q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불안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로 건너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또한 빈번한데, 그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마자 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길을 건너기 전 반드시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에는 '왼손', 중간쯤부터는 '오른손'을 45도 각도로 들어 운전자와 눈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눈을 맞추는 행위는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버스 앞뒤로 횡단할 시, 버스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버스가 지나간 후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건널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밖에 교통안전사고 예방수칙

1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보호자가 조수석에 자녀를 안고 탈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물론 어린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경우라면 카시트에 앉히고, 어린이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2 차의 주행방향과 반대로 걸으세요

차를 등지고 보행하는 경우, 차가 오는 속도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 사고위험은 4배나 높아집니다. 따라서 차를 등지고 보행하는 것보다 차의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세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밤에는 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도록 조치합니다.

Q 틈만 나면 나가서 놀자고 하는 우리 아이.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활동량이 왕성한 만큼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 보호자는 놀이기구에 대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놀이기구가 낡았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네·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에서 일어서거나 이탈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늘어진 옷끈 등은 놀이시설의 돌출부분에 걸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Q 여름철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시키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추위를 느낄 경우에는 바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물속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급상황 발생 시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영을 하면서 껌이나 사탕 등을 먹으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시킵니다.

Q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미닫이 교실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 굴러 떨어지면서 생기는 골절, 샤프심이 잘 나오지 않아 펜을 보던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바람에 발생한 찢림 사고 등 수업 중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까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 사례들을 설명함으로써 장난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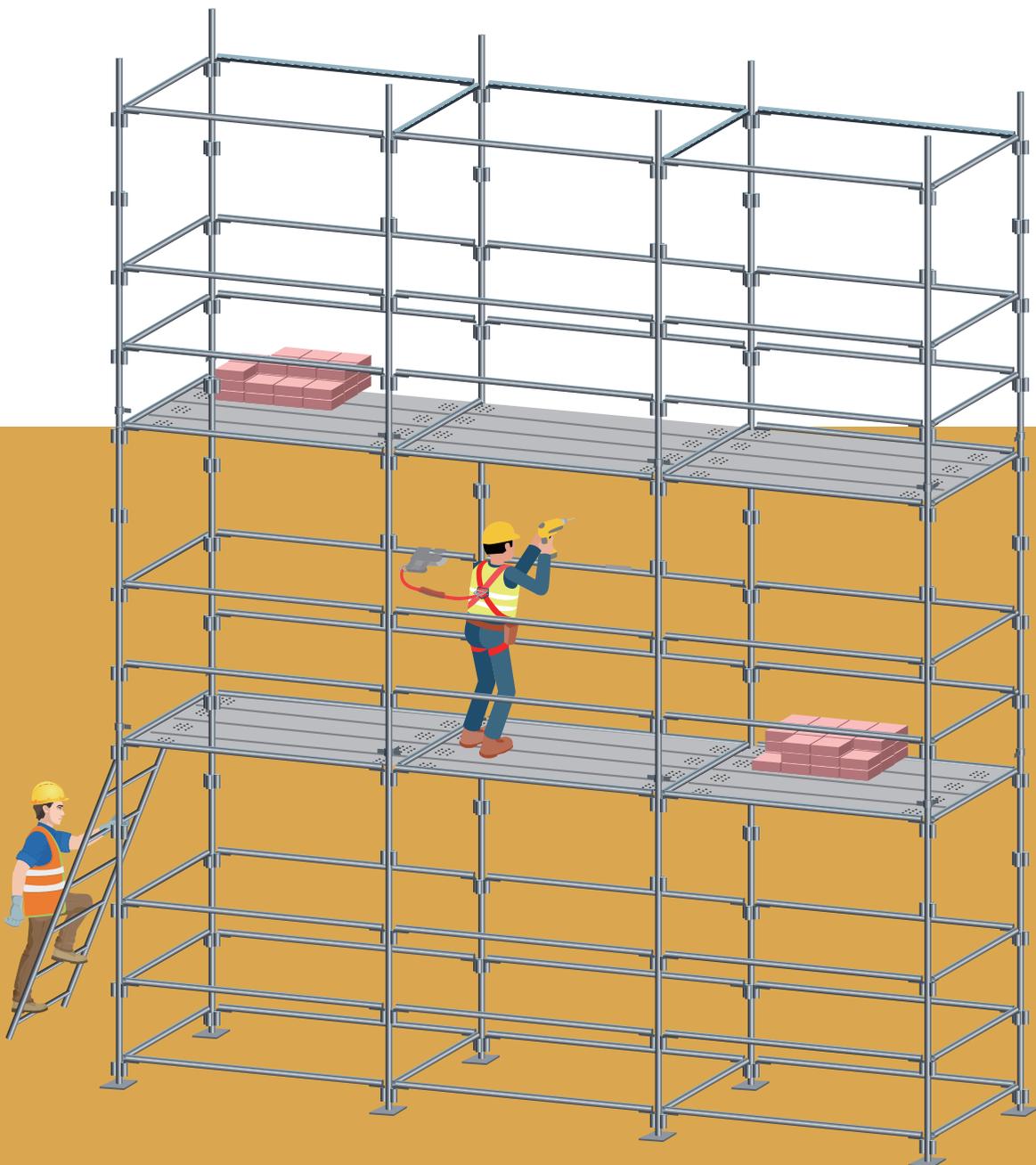
고소작업 시 필수 가시설

강재 비계

비계란 작업장소가 높아서 작업자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을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구조물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작업발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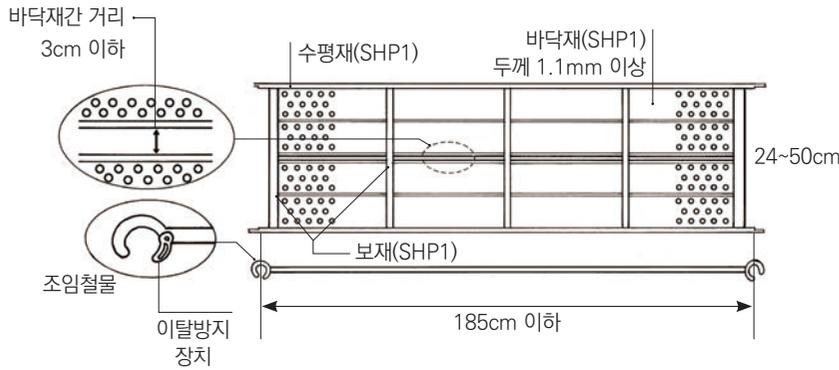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고소작업에서 꼭 필요한 가시설인 만큼 설치 및 해체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편집실



작업발판의 구조 *출처: 안전보건공단

강재 작업발판(알루미늄 유공발판)



작업발판에 의한 재해자 수

2011년	1934명
2012년	2070명
2013년	1679명
2014년	1790명
2015년	1483명
2016년	1683명
2017년	1623명

추락사고 막는 작업발판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의 약 52%(2017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다. 사다리, 건축물 단부 또는 개구부, 비계 및 작업발판 등이 사망사고를 부추기는 주요 기인물로 손꼽히는데, 이중 비계는 대부분의 주요 작업공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이다.

비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높은 이유는 불안정한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의 미착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 3차원의 공간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건설업 특성상 조금만 방심해도 추락재해로 쉽게 이어지는 것!

이 때문에 비계는 고용노동부고시(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맞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설치작업 시에는 폭 4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추락재해 사례의 단편이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건설현장. 비계를 연장 설치하기 위해 자재를 받아 올리던 A 씨는 순식간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했다. 2층 높이의 비계 위에 자리를 잡고 지상에서 올려주는 강관파이프를 받던 중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수직 개구부에 떨어질 뻔 한 것이다.

다행히 옆에 있는 비계기둥을 잡아 천만다행이었지만 A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한동안 애를 먹었다. 같은 시각. 54층 외벽 유리창 설치작업을 완료한 B씨는 가설안전작업발판을 55층으로 인상하던 중 갑작스럽게 작업발판이 이탈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처럼 비계에 의한 사망사고재해는 미설치는 물론이고 설치불량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 비인증 가설기자재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추락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비계 설치 및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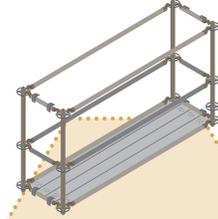
작업발판 설치시 유의사항

비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시설인 만큼,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법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해야 한다.



발판재료 점검하기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정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발판재료 간의 틈
은 3cm 이하로 해야 하며, 외출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하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
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
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또는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출입금지 표시하기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
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최대적재하중 정하기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적재하중을 넘기면 이마저도 무
용지물이다. 따라서 작업발판 설치 시에는 부
자재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최대적재하
중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실어서는 안
된다.



안전인증마크 확인하기

강관 비계용 부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
조(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
(KCS)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시 주요 위험 요인 및 안전수칙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사망사고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설비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작업발판은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재해유형도 다양하지만 주로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재해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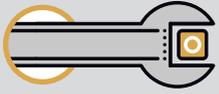


주요 유해·위험 요인

- 조립·해체 및 발판 위 작업 중 떨어짐 위험
- 조립·해체 및 가새 및 벽이음 누락 설치불량에 따른 붕괴위험
- 비계용 강관 운반 중 가공전로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출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작업발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었는가?		
2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인가?		
3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4	노동자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였는가?		
5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6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경우,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착 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점검하였는가?		
7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8	작업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인가?		
9	발판 재료 간의 간격이 3cm 이하인가?		
10	발판재료 간의 간격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출입금지 표시를 하였는가?		
11	작업발판 위 오염물질(물, 모래, 콘크리트 등) 및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자재는 제거하였는가?		
12	작업발판은 2개소 이상 고정하였는가?		
13	노동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



EDUCATION

교육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무지에도
돈이 들어간다

by 클라우스 모서(영국 통계학자)

멋진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교육'일 것입니다.
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지불해야 하는 예산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교육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가이드 아닐까요.

안전의 참견

비계 해체 작업 시 주의사항

-by 김양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찬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선배들



경력은 오래 되지 않았지만, 받고 성실한데



어느날 문득



특유의 캐릭터로 선배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뜻밖의 제안이었는데



의외로 동찬이



동찬이는 진지했다.



그리고 다음날



알고 보니



비계 해체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유는 이거였다.



벌써 선배들이 와서 해체 중이었는데



다들 배를 잡고 웃었지만



동찬이 갑자기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경험 많은 선배들은 웃었는데



그럴수록 더 심각해지는 동찬이



선배들은 불멘소리를 했지만



동찬이는 단호했다.



사고라는 말에 선배들도 결국 수긍했는데



그때부터 동찬이



마치 현장 소장처럼





해체 현장을 지휘했다.



그렇게 비계 해체가 무사히 끝났고



선배들, 동찬이를 칭찬했다.



그런 선배들의 칭찬에



동찬이도 어깨가 좀 으쓱해졌다.



비록 선배들의 칭찬이



계속 좋게 들리지만은 아니지만.



진드기와의 하룻밤 여름 캠핑 주의보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소참진드기’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해 지난해에만 272명이 감염됐고 54명이 사망했다. 여름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진드기.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안전구역은 과연 있을까. 살인진드기의 피해로부터 예방 가능한 방안들은 무엇일까.

글 임기현 | 이미지 SBS<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in 바누아투>, MBC every1<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MBC<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 캡처

진드기 피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보면 온 가족이 캠핑을 하거나 등반을 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글의 법칙>, <1박 2일>, <섬총사> 등처럼 아예 ‘야생’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도 속출한다.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탁 트인 자연환경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SFTS 발생 사례를 생각하자면 진드기에 대한 우려가 괜한 걱정은 아닐 듯싶다.

SFTS는 진드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으로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일부 환자는 증증으로 진행돼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데, 특히 7~10월께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가급적 풀과 나무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자. 풀밭에 앉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작업복이나 야외활동복도 일상복과 구분해서 입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팔, 긴바지를 입는 것은 물론 팔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짓단은 양말 안으로 집어넣어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최소화하자.

혹시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거나 붙어 있는 진드기를 확인했다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야외활동을 다녀온 후 2주 이내에 열,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점상·반상출혈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찰 받아야 한다.

Scene 1

정글의 법칙

전 세계 오지에서 벌어지는 생존기를 그린 <정글의 법칙>은 '달인' 김병만을 필두로 한 병만족들이 극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무인도나 정글 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다보니 모기, 진드기 등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리키 김, 추성훈, 박시은 등이 합류한 '바누아투' 편에서는 진드기의 습격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됐다. 저녁이 가까워진 시간, 비가 쏟아져 예정에 없던 비박을 준비하게 된 병만족. 부랴부랴 대나무 움막을 짓고 바나나 나뭇잎을 이부자리 삼아 누운 병만은 앞에 붙은 진드기 때문에 밤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글의 난코스에서 병만족들은 어떻게 진드기로부터 벗어났을까. 해답은 SBS 홈페이지 정글의 법칙 21회(무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 SBS
방영 2011.10.21 ~ 방영 중
출연 김병만 외 다수



Scene 2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방인의 한국 방문기를 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독일편에서는 다니엘 린데만이 초대 독일 친구 3인방의 북한산 등정기가 전파됐다. 폭염주의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등정을 감행한 이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특이한 점은 반팔, 반바지 등 간편한 차림새만으로도 손쉽게 정산 등반을 성공했다는 것!

등산복을 갖춰 입고 산을 오르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와 독일의 문화적 차이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만, 진드기 예방을 위해선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여 노출되는 신체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작 MBC every1
방영 2017.07.27 ~ 방영 중
출연 김준현, 신아영, 알베르트 몬디 등

Scene 3

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

공룡이 살고 있는 '두니아'라는 가상의 세계에 떨어진 10명의 사람들. 한류스타 동방신기의 리더 '유노윤호'를 비롯해 '샘 오취리', '돈 스파이크' 등이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은 비록 가상의 세계라고는 하지만 진드기의 위험이 도사리는 '밀림'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공룡을 피해 야생의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미션이 주어진 서바이벌 게임! 하지만 진드기에 의한 SFTS 감염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공룡뿐 아니라 진드기와 의 전쟁도 치러야 하지 않을까.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45분 MBC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작 MBC
방영 2018.06.03 ~ 방영 중
출연 유노윤호, 단던, 루다, 샘 오취리 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버린 카페인

최근 커피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급원두를 사용해 고품질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최윤희 대리(안전감사국 식의약안전팀)

하루 2~4잔 섭취 시, 1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커피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쁜 일상 중 잠깐의 여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2~4잔 이상 섭취 시 1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커피 33개 전 제품,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 음료(ml당 0.15mg 이상 카페인 함유 액체식품)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CUP)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

소 116mg~최대 404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으며,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되었다.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카페인 함량 제공한 업체는 20개 중 4개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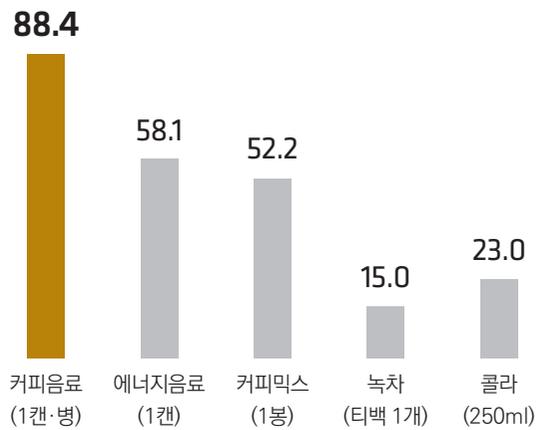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조사를 실시한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나,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

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별 카페인 평균 함량 예시 (단위 : mg)



내 귀에 도청장치? 소음 많은 작업장, 귀 건강 챙기세요

공장, 목공소, 공사현장 등 소음이 많은 작업장은 이명 현상을 부추기곤 합니다. 이명이란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난치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로운 음식 섭취도 이명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를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귀밭이 음식, 견과류

정월대보름에 귀밭이 음식으로도 먹는 호두, 밤, 잣, 땅콩 등의 견과류에는 청신경 활동을 돕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아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이명으로 인해 맥박소리가 귀에 크게 들리는 경우 꾸준히 섭취해주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석 달간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이명 환자의 45%가 이명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내음 가득한 굴

아연은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김, 미역 등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과 굴 등의 어패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할 시 건강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들 식재료에는 아연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웅이 사랑한 마늘

썩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된다는 '단군신화' 이야기는 어쩌면 마늘의 효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선조들의 지혜일지도 모른다. 달팽이관의 혈액공급 통로인 달팽이 동맥에 지방과 노폐물이 엉겨 붙으면 제 역할이 힘들어져 난청이 생기는데, 마늘은 달팽이 동맥 속 노폐물을 줄여주고 혈액 내 지방 성분을 줄여 혈액순환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배이가 즐겨 먹은 시금치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영양소이다.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신경전달물질로써 미국 이비인후과학회는 엽산 수치가 높은 6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난청 위험이 약 20%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금치를 먹으면 귀력이 생겼던 보배이. 넘쳤던 귀력만큼 청력도 좋지 않았을까.

3대 명약 구기자

이명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간과 신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섭취하면 좋은 것이 바로 구기자! 구기자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피를 맑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중국에서는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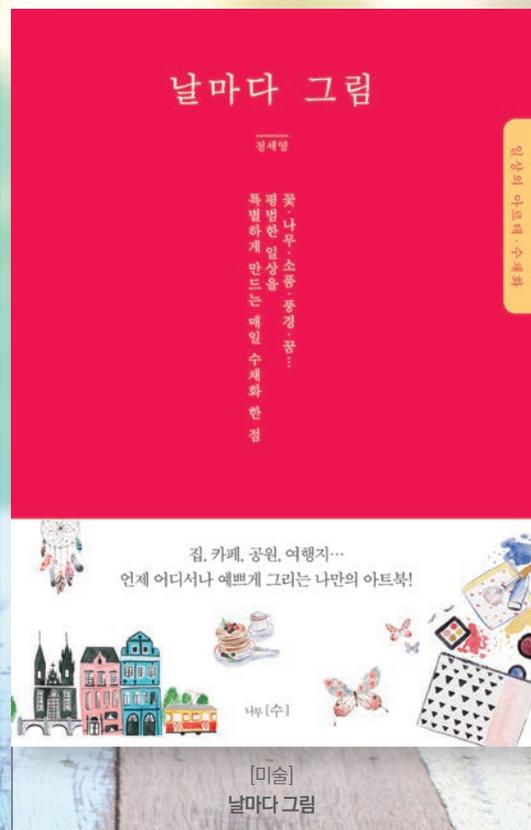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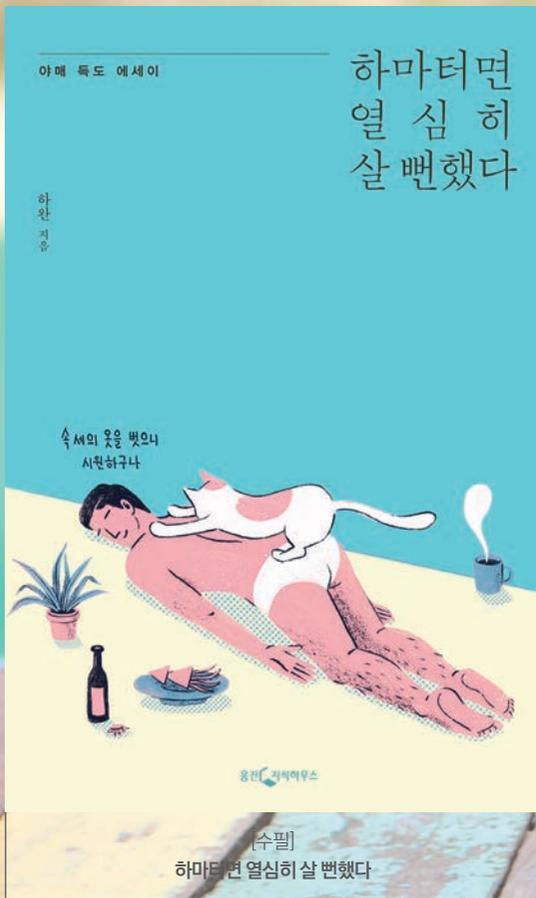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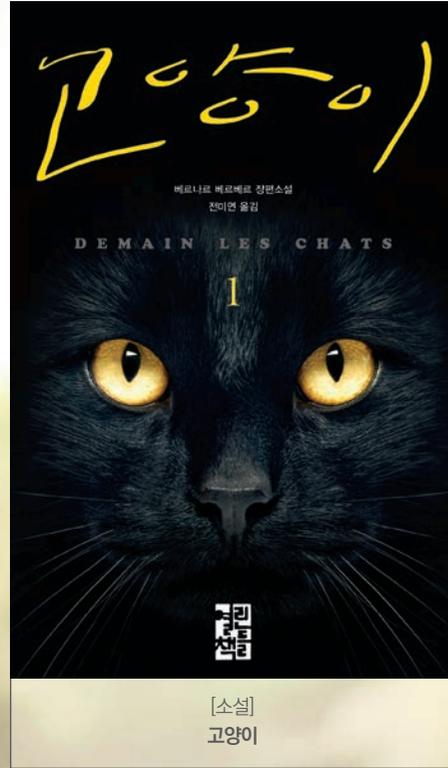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일한다면 정기적인 청력평가를 받으세요!

이명은 전체 인구의 약 17%, 특히 노인층에서는 약 1/3 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이명의 원인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업화에 의한 각종 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는 귀마개 등 보호장치를 꼭 착용해야 하며,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청력평가를 받아 이상 유무나 진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할 때 책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곤 합니다. 책 속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 속에 나를 온전히 맡겨보면 어떨까요. 8월, 잠시 쉬어가도 좋은 페이지 속에서 한여름의 바캉스처럼 속 시원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편집실 / 이미지 열린책들<고양이>, 웅진지식하우스<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무수<날마다 그림>



Novel

고양이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신〉, 〈나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등 수많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써낸 소설가. 작품들은 35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간 2,3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사나운 쥐 떼에 점령당한 도시. 이를 피해 불로뉴 숲으로 도망친 고양이들.

뺏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고양이들은 군대를 결성하지만, 쥐 떼들을 피하기 위해선 인간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둔 인류! 철체절명의 위기에서 고양이와 인간들은 과연 소통에 성공하고 전쟁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양이의 눈에 비친 인간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인간들은 전쟁과 테러에서 벗어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Essay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자: 하완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이 모양인가'라는 의문을 품다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다보니 이제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고, 다수의 책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의 인생 스케줄과 속도가 있을 텐데, 세상이 정해둔 인생 매뉴얼은 늘 가시밭길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인생 매뉴얼의 문턱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등바등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 세상이 정해둔 기준에 맞춰 살다보니 늘 고민과 혼란을 거듭했다고 고백하는 저자는 열정도 함부로 쓰다 보면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역지로 열정을 가지려 애쓰기 보단 자신의 속도에 귀 기울이자는 저자의 솔직하고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다.



Art

날마다 그림

원작: 정세영

수채화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수채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현재는 수채화 클래스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그림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이자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특효약이 된다. 일에 지친 직장인,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보지 않은 일반인 모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하나쯤 그릴 수 있다면 건조한 삶이 보다 윤택해지지 않을까.

저자는 4가지 물감만으로 완성한 '노을 지는 호수'를 소개하는 등 몇 가지 수채화 기본 기법만으로도 초보자들이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꽃과 나무, 집, 카페, 공원, 여행지 등 일상 공간을 담아낸 '나만의 갤러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한 조직을 이끄는 여유만만 좋은 리더

여유(餘裕). 물질적·공간적·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여유'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요?

하지만 변화를 피하는 조직일수록, 위기에 처해있는 조직일수록 '여유'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힘이 됩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현명한 방식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한 충청도식 유머를 통해 여유의 힘을 알아봅니다.

글 편집실

아내와 함께 미장원을 들른 중년의 사내.

“온 김에 당신도 이발 한번 허유.”

“아직 괜찮어유.”

“어구참. 그러지 말고 온 김에 허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이발을하기로 결심한 사내는
미용사의 안내에 따라 머리를 감기 위해 베드에 누었다.

“물 나와유.”

“알겠어유.”

무심코 물을 트는 미용사.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이 팔팔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미용사. 하지만 요지부동인 사내.

걱정스런 표정으로 미용사가 물 온도가 괜찮냐고 묻자
사내가 하는 말.

“달 투겨유?”



리더의 여유, 조직을 더 강하게 키운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닭 튀겨유”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여유’가 한 몫 했을 것이다. 여유로운 태도는 리더의 자질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으로 손꼽히는데, 이것은 화가 날만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 등처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훨씬 더 그 진가를 발휘한다. 다음 예시가 그렇다. 제나라 왕이 안영을 초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안영은 ‘사람들과의 교제에 뛰어났으니,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상대를 공경하였다’는 평을 듣는 인물로 140cm가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초나라 왕은 안영의 작은 키를 보고, 기를 죽일 겸 이렇게 말했다.

“
제나라에는 사람이 없소?
”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당신처럼 왜소하고 모자란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느냐는 비아냥이었다. 하지만 안영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제나라는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군주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군주에게 사신으로 보냅니다. 제가 가장 못나서 할 수 없이 초나라 사신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초나라 왕의 무례함을 질책했던 안영의 말에 초나라 왕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만약, 안영이 초나라 왕에게 불쾌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우문에 현답을 내놓지 못하는 우스운 사람쯤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
이처럼 여유로운 태도는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효력을 지녔다.
”

리더의 여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동시에 직원들을 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매력도 지녔는데, 그 효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속 ‘신태용’ 감독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강 진출을 앞둔 경기에서 시종일관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 이것은 감독 스스로가 격하게 반응하고 급한 모습을 보이면 선수들 역시 더 조급해지고 흥분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그만의 대처방법이었고, 이러한 감독의 여유로운 태도는 선수들이 부담을 덜고 독일과의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6강 진출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이번 월드컵 경기. 한국선수들의 경기가 유난히 돋보였던 것은 조급한 마음 대신 여유와 의젓함을 잃지 않았던 감독과 선수들의 마음의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

유머감각 기르는 넌센스 퀴즈!

정답을 엽서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났을 때 가슴의 무게는? (힌트 : 두근두근)



산재노동자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의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직장을 가졌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산재노동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 산재장해로 인하여 작업시 보조기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직업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재노동자 중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요양중인 취업준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어떤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나요?

- 직무지원 보조기구는 작업현장에서 산재노동자분들의 작업을 돕기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로서 작업용 의수, 고기능 하지의지, 기능성 휠체어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 자세한 품목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재활공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ebook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재활공학연구소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10번길 26 (032-509-5200, 5269)
- 거주지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지원된 맞춤형 작업의수 사용 사례



지원된 작업용 의자 사용 사례

	소속병원	관할지역	연락처
1	인천병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수도권)	032-500-0632
2	안산병원	경기도 지역	031-500-1737
3	창원병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055-280-7666
4	순천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도 지역	061-720-7300
5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충청도 지역	042-670-5480
6	동해병원	강원도 지역	033-530-3855
7	대구병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053-715-7739

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30건 민간에 무상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예방 업무 수행을 통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무상 제공은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기술개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술은 '갠트리 크레인의 충돌 방지장치', '공사현장용 안전난간' 등 총 30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 제공기간 경과 후에는 제품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이 보유한 기술 종류와 무상 제공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경영기획실(052-703-0525)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실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6월 25일부터 3개월간 '제9차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변화를 측정하여 산재예방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전문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5,000개소이다.

이와 함께 동향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 신청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동향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6월 22일,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지자체 사망재해 절반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 및 수행사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대상은 17개 광역지자체 재난안전, 건설 및 수행사업 담당 부서장 70여 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자체 추진사업은 담당자의 잦은 전보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되어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 개최



표하는 시민들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고유업무의 공공성 제고방안 △일자리 중심경제 선도 △국민 참여와 협력 확대 등 총 7개의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과 사회가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6월 20일 오후 울산 소재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가졌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공단 혁신계획의 수립과 운영 전반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단체, 학생, 회사원,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



안전보건공단 비전과 전략

일하는 사람의 행복 파트너,
최고의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

- ▶ 수요중심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
- ▶ 자율 안전보건 관리 구축지원 강화
- ▶ 안전보건문화 확산
- ▶ 미래성장 역량강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특강 및 현장안전점검 실시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6월 18일 오후 울산 북구 소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하여 안전특강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박 이사장은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대책을 설명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

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협력을 통한 자율 안전보건활동과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고객불편 신고센터

TEL (국번없이)1644-4544

FAX 1644-4549

WEB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우리 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 때 아래 전화로 연락해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설치장소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우편번호 44429)
전화 052-245-8114
팩스 052-703-0304

4·4·4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 실시



이날 캠페인을 벌인 공사현장은 대전 법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 아산 당정 2-A5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 서산 오토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등 3곳으로,

건설업 사망재해의 21%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고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정비 관리와 안전중시문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늘 진행한 안전점검 캠페인에서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장비관리자에게는 안전점검표, 리플릿 등을 배포했다”고 밝히고, “운전 전·후 안전점검표에 의한 사전 점검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정완순), 그리고 재해예방전문기관은 6월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 건설현장 3곳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4·4·4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부패·비리 익명신고
익명보장, IP 추적불가능
www.redwhistle.org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2018년도 6월 신규 안전인증 현황

보호구

안전모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안전모	18-AV2CQ-0003	(주)에스탑	STH-M01	6/11/2018
	18-AV2CQ-0004	(주)한성세이프티	HS-P904c	6/11/2018
	18-AV2CQ-0005	(주)한성세이프티	HS-A904-CR1	6/11/2018
	18-AV2CQ-0006	(주)한성세이프티	HS-A904c	6/11/2018

안전화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가족제안전화	18-AV2CR-0144	(주)지엔텍	Z-72	6/4/2018
	18-AV2CR-0145	(주)지엔텍	L-52	6/4/2018
절연화	18-AV2CR-0146	(주)대성FNT	WS-4000E	6/7/2018
	18-AV2CR-0147	(주)대성FNT	WS-434EP	6/7/2018
	18-AV2CR-0148	(주)대성FNT	WS-437NP	6/7/2018
	18-AV2CR-0149	(주)대성FNT	WS-491P	6/7/2018
	18-AV4CR-0150	Petcher Footwear Industry Co., Ltd.	N4841	6/11/2018
	18-AV2CR-0151	(주)지엔텍	Z-74	6/17/2018
	18-AV2CR-0152	(주)지엔텍	Z-75	6/17/2018
	18-AV2CR-0153	(주)지엔텍	L-63	6/17/2018
	18-AV2CR-0162	(주)지엔텍	Z-85	6/17/2018
	18-AV2CR-0164	영진실업(주)	FS-602	6/17/2018
	18-AV2CR-0165	태양안전제화	TS-402	6/17/2018
	18-AV2CR-0166	(주)에이치비	HB-430	6/17/2018
	18-AV2CR-0167	(주)경도상사	EW-412P	6/17/2018
	18-AV2CR-0168	(주)경도상사	EW-411P	6/17/2018
	18-AV2CR-0169	(주)경도상사	EW-405P	6/17/2018
	18-AV2CR-0170	(주)경도상사	EW-203P	6/17/2018
	가족제안전화	18-AV4CR-0154	Zhejiang Haina Shoes Co., Ltd	HM-406N
18-AV4CR-0155		Zhejiang Haina Shoes Co., Ltd	HM-506N다이얼	6/17/2018
18-AV4CR-0156		JUNAN AQLINSI SPORTING GOOGS CO.,LTD	2000-1	6/17/2018
18-AV4CR-0157		HANS VIETNAM ONE MEMBER COMPANY LIMITED	HS-39-2 오리온	6/17/2018
18-AV4CR-0158		RUIAN HUAQIANG SHOES CO.,LTD	MT-425	6/17/2018
18-AV4CR-0159		JUNAN AQLINSI SPORTING GOOGS CO.,LTD	TB-400	6/17/2018
18-AV4CR-0160		JUNAN AQLINSI SPORTING GOOGS CO.,LTD	TB-404	6/17/2018
18-AV4CR-0161		SHINWOON CHEMICAL PRODUCTS INDONESIA, PT	LB-802	6/17/2018
18-AV4CR-0163	JUNAN AQLINSI SPORTING GOOGS CO.,LTD	BFL-620	6/17/2018	
18-AV4CR-0171	PT. YOUNG DAN JAYA	KG-50	6/17/2018	

방독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방독마스크	18-AV4CU-0013	Shigematsu Works Co., Ltd.(Funehiki plant)	KTW01SCKX/OV	6/22/2018
방독마스크	18-AV4CU-0014	Shigematsu Works Co., Ltd.(Funehiki plant)	KTW01SCKX/OVKLL	6/22/2018
방독마스크	18-AV4CU-0015	Shigematsu Works Co., Ltd.(Funehiki plant)	KTW01SCKX/OVKL2L	6/22/2018

송기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송기마스크	18-AV4CV-0005	SATA GmbH Co. KG	SATA AIR VISION 5000	6/25/2018

전동식 호흡보호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전동식 호흡보호구	18-AV4CW-0009	3M(Valley, USA)	S-655+TR-600+TR-6310E	6/25/2018
	18-AV4CW-0010	3M(Valley, USA)	S-657+TR-600+TR-6310E	6/25/2018
	18-AV4CW-0011	3M(Valley, USA)	S-855+TR-600+TR-6310E	6/25/2018
	18-AV4CW-0012	3M(Valley, USA)	S-857+TR-600+TR-6310E	6/25/2018

보호복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방열복	18-AV2CX-0023	(주)성광텍크	방열복호대(SKHD-01)	6/27/2018
	18-AV2CX-0024	(주)성광텍크	방열복트(SKHD-02)	6/27/2018
	18-AV2CX-0025	(주)성광텍크	방열장갑(SKHD-03)	6/27/2018
	18-AV2CX-0026	(주)성광텍크	방열각반(SKHD-04)	6/27/2018

안전대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안전대	18-AV4CY-0018	3M Capital Safety Manufacturing (Banska)	LYD 1114091-1341126	6/21/2018
	18-AV4CY-0019	3M Material Technology (Guangzhou) Ltd.	LYD 1390069-1341126	6/21/2018
	18-AV2CY-0020	(주)대하산업	DH-103AL	6/25/2018
	18-AV2CY-0021	(주)대하산업	DH-105AL	6/25/2018

방음용 보호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방음용보호구	18-AV2Cb-0001	(주)캠소닉	이어실드 귀마개 개방형 (ES-01)	6/19/2018
	18-AV2Cb-0002	(주)캠소닉	이어실드 귀마개 폐쇄형 (ES-02)	6/19/2018

방호장치

양중기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18-AV4BJ-0004	(주)큐리오텍	S0C-200H	2018-06-11

압력용기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18-AV6BL-0010	벤델인터스트리	KSEA/F-3/4(80A)	6/4/2018

가설기자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가설기자재	18-AV2BP-0117	주식회사제이엠	JM-01	2018-06-05
	18-AV2BP-0118	(주)정구가설	DP-04	2018-06-07
	18-AV2BP-0119	(주)정구가설	DP-09	2018-06-07
	18-AV2BP-0120	(주)정구가설	DP-19	2018-06-07
	18-AV2BP-0121	(주)정구가설	DP-38	2018-06-07
	18-AV2BP-0122	(주)정구가설	DH-03	2018-06-07
	18-AV2BP-0123	(주)정구가설	DH-06	2018-06-07
	18-AV2BP-0124	(주)정구가설	DH-09	2018-06-07
	18-AV2BP-0125	(주)정구가설	DH-12	2018-06-07
	18-AV2BP-0126	(주)정구가설	DH-15	2018-06-07
	18-AV2BP-0127	(주)정구가설	DH-18	2018-06-07
	18-AV2BP-0128	(주)정구가설	연결조인트	2018-06-07
	18-AV2BP-0129	예은산업주식회사	YO-2	2018-06-18
	18-AV2BP-0130	(주)금호	KHC-BT1	2018-06-19
	18-AV2BP-0131	엘디 테크	MD101	2018-06-19
	18-AV2BP-0133	(주)선진가설산업	SJ-0032	2018-06-22
	18-AV2BP-0134	(주)선진가설산업	SJ-0062	2018-06-22
	18-AV2BP-0135	JINMYUNG CO.,LTD	JMVN-1500	2018-06-25
	18-AV4BP-0132	Liaoning Zhongwang Import & Export Trade Co.,Ltd	AL-SP2.6	2018-06-22

방폭기기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인증일자
삼상유도전동기	18-AV4BO-0195	SEW Eurodrive GmbH & Co. KG	EDRE180S4/3***	2018-06-04
삼상유도전동기	18-AV2BO-0196	현대일렉트릭엔지니어링(주)	HME6 311-26E	2018-06-04
삼상유도전동기	18-AV2BO-0197	현대일렉트릭엔지니어링(주)	HME6 316-46E	2018-06-04
삼상유도전동기	18-AV2BO-0198	현대일렉트릭엔지니어링(주)	HDE5 402-26E	2018-06-04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18-AV2BO-0199X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성남지점	P602-17000	2018-06-04

*그 외 안전인증 현황은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수록하지 못하였으니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http://miis.kosh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회차 '미디어 평가 설문' 당첨을 축하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접수(우편, 팩스)된 고객 대상 설문엽서 경품 추첨결과를 공개합니다. 금상과 은상은 주소지와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수령(별도 연락)하실 수 있으며, 참여상은 일괄 택배 발송합니다. 평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회차(6월 25일~11월 25일)평가 설문에도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고객평가태그 당첨자 명단

대상	이명*	충남 홍성군	김태*	서울 강서구	안윤*	서울 동작구	인체*	경기도 수원시
은상 (3명)	송현*	경기도 의정부시	김태*	춘천시 사농동	안전담영*	부산시 사하구	정영*	경기 김포
	나진*	전남 여수시	김필*	충남 논산시	안전주*	부산시 사하구	정채*	경남 김해시
	이상*	경기도 광주시	김현*	경남 김해시	안종*	경기도 평택시	정채*	경남 김해시
	강건*	인천시 남동구	김현*	부산광역시	여명*	충남 논산시	정철*	부산시 사하구
	강구*	대구시 달서구	김해*	경기 의왕	여천*	경기도 하남시	정희*	대구 북구
	강길*	경북 포항시	김호*	부산시 동래구	오광*	충남 논산시	전윤*	충남 논산시
	강영*	경남 김해시	김휘*	울산 광역시	오기*	경남 창원시	전재*	부산 사하구
	강예*	인천시 연수구	노성*	경남 고성군	오상*	대전 서구	정기*	경북 포항시
	강웅*	충남 논산시	남*	충남 논산시	오준*	부산시 북구	정도*	강원도 홍천군
	강주*	부산시 기장군	도성*	대구 광역시	왕채*	전남 여주시	정문*	전북 군산시
	강현*	경기도 시흥시	류경*	전북 익산시	우도*	서울시 영등포구	정영*	경남 창원시
	강호*	인천시 남동구	문달*	부산시 사하구	우순*	경기도 평택시	정지*	경기도 고양시
	곽효*	경기 화성시	민*	경기도 구리시	우재*	울산시 울주군	정철*	경기도 남양주시
	구진*	충남 서천군	민민*	충남 논산시	우정*	부산시 동래구	정현*	경기도 군포시
	권미*	경북 영천시	민효*	부산시 북구	우형*	서울시 강남구	정현*	경기도 시흥시
	권희*	대구시 남구	박귀*	전남 장성군	원종*	인천 남동구	조병*	경기도 의정부시
	김창*	부산시 북구	박기*	인천시 서구	원준*	대구시 동구	조영*	경기도 의정부시
	김건*	김해시 진영읍	박동*	충남 논산시	원창*	경남 통영시	조한*	경기도 의정부시
	김규*	부산시 동래구	박명*	경기도 부천시	유성*	전남 여주시	조항*	경기도 의정부시
	김근*	부산시 동래구	박봉*	충남 논산시	유재*	충남 천안시	조형*	경기도 안성시
김기*	경기도 평택시	박성*	충남 논산시	윤동*	충북 청주시	조호*	경기도 구리시	
김태*	충남 보령시	박순*	대구시 달서구	윤복*	전남 강진군	이동양창*	부산시 강서구	
김대*	경기도 평택시	박영*	인천시 남동구	윤성*	전남 순천시	주태*	충남 서천군	
김동*	경북 포항시	박재*	부산시 해운대구	윤정*	전남 순천시	지경*	경기도 구리시	
김명*	충남 논산시	박지*	대구 북구	이귀*	부산시 해운대구	지용*	경남 창원시	
김영*	춘천시 사농동	박진*	경기 고양시	이귀*	대구시 남구	지지*	전남 여주시	
김미*	경남 창원시	박진*	경남 창원시	이기*	경기 안산시	차수*	광주 광산구	
김미*	전남 목포시	박찬*	부산시 남구	이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차영*	대구시 달서구	
김민*	충남 논산시	박창*	부산시 강서구	이명*	충남 아산시	차용*	대구시 달서구	
김민*	충남 논산시	박해*	전남 여주시	이병*	경기도 구리시	차진*	대구시 달서구	
김병*	서울 광진구	박희*	충남 논산시	이복*	서울 송파구	채라*	전남 여주시	
김삼*	경북 포항시	배자*	부산 금정구	이상*	서울 성북구	천원*	인천시 부평구	
김성*	경기도 안산시	빈	충남 논산시	이상*	경기도 평택시	최명*	충남 논산시	
김성*	경기 가평읍	서광*	충남 논산시	이상*	서울 동대문구	최성*	경북 영천시	
김성*	서울 강서구	서명*	인천시 중구	이선*	전남 목포시	최여*	부산시 북구	
김성*	대구시 서구	서미*	경남 김해시	이수*	부산시 금정구	최영*	대구시 달서구	
김수*	충남 천안시	서봉*	서울 영등포구	이순*	경기도 의정부시	최용*	경남 창원시	
김시*	충남 논산시	서영*	서울 동대문구	이익*	경북 경주시	최은*	서울 성북구	
김신*	서울 성북구	서정*	충남 논산시	이재*	경기 안성시	최재*	충남 홍성군	
김영*	충북 청주시	서지*	경남 김해시	이재*	경기도 구리시	최중*	충남 논산시	
김용*	울산시 남구	석형*	부산시 북구	이중*	경기도 구리시	최진*	인천시 남동구	
김유*	경기도 평택시	손*	서울시 양천구	이준*	경기도 의정부시	태경*	광주 광산구	
김은*	경기도 연천군	손수*	경남 김해시	이중*	충남 논산시	하길*	부산시 북구	
김미*	충남 논산시	손지*	경기도 수원시	이한*	충남 천안시	한봉*	충남 홍성군	
김재*	서울 성북구	송기*	경기도 평택시	이한*	경기도 구리시	한호*	충북 청주시	
김재*	충남 논산시	송진*	충남 논산시	이현*	부산시 기장군	허작*	부산시 북구	
김지*	충북 제천시	송호*	충남 논산시	이현*	서울 중구	홍다*	서울 동대문구	
김지*	경기도 구리시	신봉*	전남 목포시	이현*	인천시 남동구	홍수*	부산시 중구	
김진*	서울시 마포구	신성*	전남 목포시	이현*	인천시 남동구	황득*	부산시 동래구	
김진*	경기도 구리시	신민*	경북 구미시	이형*	경기도 군포시	황순*	청주 대성동	
김철*	경기도 구리시	심병*	강원도 삼척시	이형*	경기도 군포시	황주*	부산 동래구	
김홍*	경기 하남시	심원*	부산시 동래구	이혜*	울산시 북구	황지*	경기 안산시	
김태*	서울시 강남구	안동*	인천시 부평구	이호*	강원도 삼척시	황태*	경기도 고양시	
김태*	서울 성북구	안선*	충남 서천군	이희*	서울 성북구			

KOSHA 본부·산하기관

안전보건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454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4544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5656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052-703-0752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7층	
대표 전화 02-6711-2800	교육 신청 전화 02-6711-2914	팩스 02-6711-2920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재로 42 우리빌딩 7층	
대표 전화 02-3783-8300	교육 신청 전화 02-3783-8355	팩스 02-3783-8359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종로구 및 노원구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대표 전화 033-815-1004	교육 신청 전화 033-815-1058	팩스 033-243-8315
관할구역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대표 전화 033-820-2580	교육 신청 전화 033-820-2552	팩스 033-820-2591
관할구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대표 전화 051-520-0510	교육 신청 전화 051-520-0563	팩스 051-520-0569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북부출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감로 37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업무동 403호	
대표 전화 051-319-4380	교육 신청 전화 051-319-4380	팩스 051-319-4397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3층	
대표 전화 052-226-0510	교육 신청 전화 052-226-0567	팩스 052-260-6997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대표 전화 055-269-0510	교육 신청 전화 055-269-0513	팩스 055-269-0590
관할구역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 노동합동청사 4층	
대표 전화 055-371-7500	교육 신청 전화 055-371-7502	팩스 053-421-8625
관할구역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20층	
대표 전화 053-609-0500	교육 신청 전화 053-609-0574	팩스 053-421-8625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대표 전화 053-650-6810	교육 신청 전화 053-650-6813	팩스 053-650-6820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군위군·칠곡군(석적읍 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대표 전화 054-271-2013	교육 신청 전화 054-271-2012	팩스 054-271-2019
관할구역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대표 전화 054-478-8000	교육 신청 전화 054-478-8063	팩스 054-453-0108
관할구역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충북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대표 전화 032-5100-500	교육 신청 전화 032-510-0587	팩스 032-581-8380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	
대표 전화 031-259-7149	교육 신청 전화 031-259-7173	팩스 031-259-7170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대표 전화 031-841-4900	교육 신청 전화 031-828-1942	팩스 031-878-1541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대표 전화 031-481-7599	교육 신청 전화 031-481-7553	팩스 031-414-3165
관할구역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대표 전화 031-785-3300	교육 신청 전화 031-785-3359	팩스 031-785-3333
관할구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대표 전화 032-680-6500	교육 신청 전화 032-680-6551	팩스 032-681-6513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대표 전화 062-949-8700	교육 신청 전화 062-949-8712	팩스 062-944-8277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주지방노동청 4층	
대표 전화 063-240-8500	교육 신청 전화 063-240-8523	팩스 063-240-8519
관할구역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원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대표 전화 063-460-3600	교육 신청 전화 063-460-3614	팩스 063-460-3650
관할구역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대표 전화 061-689-4900	교육 신청 전화 061-689-4903	팩스 061-689-4990
관할구역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전남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합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대표 전화 061-288-8700	교육 신청 전화 061-288-8713	팩스 061-288-8778
관할구역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설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층	
대표 전화 064-797-7500	교육 신청 전화 064-797-7525	팩스 064-797-7518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3층	
대표 전화 042-620-5600	교육 신청 전화 042-620-5671	팩스 042-633-1938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서산시·금산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부여군 및 태안군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	
대표 전화 043-230-7111	교육 신청 전화 043-230-7169	팩스 043-236-0371
관할구역	충청북도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대표 전화 041-570-3400	교육 신청 전화 041-570-3406	팩스 041-579-8906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및 예산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8년 9월 1일 부터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신청 방법 집합교육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 교육신청
▶ 관할 구역 선택 ▶ 교육 과정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 ▶ 확인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교육) ▶ 회원가입 ▶ 로그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색 ▶ 수강신청 ▶ 교육이수 ▶ 이수증 출력 및 집체교육시 제출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진행 및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및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Q 선임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Q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 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30~5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 9. 1)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Q 언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 사업장당 2명 이상 신청 가능, 단 '17년 시범교육 이수자는 제외

** '19년 선임대상인 20~30인 사업장의 경우 '18년 교육 이수 시 '19년 선임 가능

교육시간 및 방법 : 16시간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체험 교육 11시간)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3시간),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3시간) 등

준비물 : 본인 여부를 증명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이러닝 이수증 지참

수료 기준 : 집체교육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 교육과정(11시간)의 90% 이상 출석

* 이러닝 교육은 학습진도 80% 이상 시 시험가능하며, 시험점수 60점 이상 득점해야 수료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1회 한함)

월간 <안전보건>은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더 나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립니다.



감동이 있는 기사,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김상욱 /포항 남구

칼럼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 소개된 심리 상담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해 준 좋은 기사였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매거진 <안전보건>, 늘 응원합니다!

이명용 /충남 아산시

정신적 건강장애는 무엇보다 치료하기가 어려운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휴먼에러 방지와 노동심리학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이야기 월간 <안전보건>이 전해드립니다



월간 <안전보건>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무료 정기간행물입니다.

월간 <안전보건> 무료로 받아보기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찾아주세요.
2. 우측 하단의 '안전보건자료실'을 클릭합니다.
3. 좌측 하단의 '월간 안전보건'을 클릭 후 '구독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장등록번호로 검색하여 신청)
4. 매월 편하게 월간 <안전보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월간 <안전보건>은 여러 작업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희망합니다.
월간 <안전보건>을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 얻고 싶은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또 하나, 설문지를 복사해 직장 동료와 함께 작성하여 한꺼번에
팩스(052-703-0322)로 보내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전보건 2018. 08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2018. 08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 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북정동) 본부 4층
교육미디어개발부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설 문 엽 서

우편 또는 팩스로 독자엽서를 보내주세요

설문엽서로 미디어평가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경품추첨

- 1회차 2018년 7월 첫째주
2회차 2018년 12월 첫째주
- 1회차 '18. 6. 22 이전 도착분
- 2회차 '18. 11. 23 이전 도착분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경품추첨일 이후 SMS로
개별통보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2018. 08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 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받는 사람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북정동) 본부 4층
교육미디어개발부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독자 여러분이 읽고 싶은 월간 <안전보건>을 들려주세요!

월간 <안전보건>이 독자 여러분께 더 유익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적어주세요. (마감 : 8월 10일 도착분까지)

Q2. 매년 공단에서는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귀사 또는 귀하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나요? (형태 또는 주제를 자유롭게 기입해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Q3. 75페이지에 기재된 년센스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난호 정답 : 일본사람)

-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설문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052-703-0322)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가 사업장 재해 예방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경영층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기타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디자인·편집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내용구성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반적 만족도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input type="radio"/> 제조업	<input type="radio"/>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input type="radio"/> 건설업	<input type="radi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input type="radio"/> 전기·가스·수도업	<input type="radio"/> 건물종합관리업
<input type="radio"/> 운수·창고·통신업	<input type="radio"/> 음식 및 숙박업
<input type="radio"/> 임업·농림·어업	<input type="radio"/> 도·소매업 및 수리업
<input type="radio"/> 기타산업	<input type="radio"/> 교육·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규모	
<input type="radio"/> 5인 미만	<input type="radio"/> 5~49인
<input type="radio"/> 50~99인	<input type="radio"/> 100~299인
<input type="radio"/> 300인 이상	

2018년 7월 당첨자

이명용 충남 아산시
김상욱 포항 남구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전보건 미디어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 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직책, 회사명, 회사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당해 연도 (경과 시 일괄폐기)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어 경품중첨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Fax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전화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0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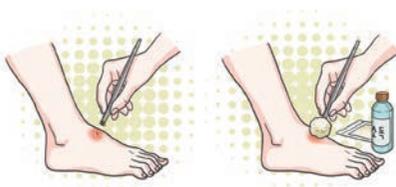
사내 게시판에 붙여서
활용하세요!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야생진드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진드기에 물릴 경우 SFTS*에 감염돼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SFTS :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창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이렇게 하세요!



① 진드기는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손이 아닌 핀셋을 이용해 진드기를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자.



② 모든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드기에 물렸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빠른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진드기 제거법



핀셋을 이용해 진드기를 제거할 때에는 비틀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수직 방향으로 제거해야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지 않는다.

예방수칙



① SFTS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 따라서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풀밭 위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펴서 앉는 것이 안전하다.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하자.



② 긴팔,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자.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야외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외출 후 머리카락, 귀 주변,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자. 사용한 옷은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기존	▶	변경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축의금·조의금			화환·조화 10만원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선물	5만원	▶	5만원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3만원	▶	3만원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기존과 같음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 원 까지 가능(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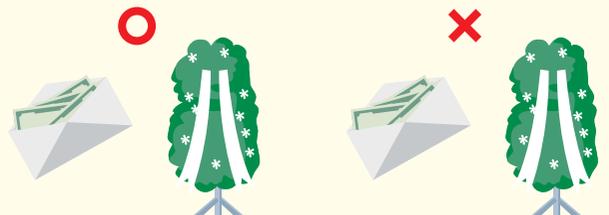
- 인허가 신청인 • 지도·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 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농수산물 선물 + 그 외 선물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 선물 + 그 외 선물
3만원 + 7만원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축의금·조의금 + 화환·조화
5만원 + 5만원

축의금·조의금 + 화환·조화
7만원 + 3만원

축의금·조의금 + 화환·조화
3만원 + 7만원



추락은 사망입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안전은 생명입니다

안전장비 착용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